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책임연구원 : 정은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발 간 사 ■ ■ ■

아동·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단계에서 가장 많은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급속한 신체 변화와 인지 발달, 생활 반경과 사회관계의 확대 등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정서적 불안 등의 많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와 같은 발달상의 문제에 직면하여 청소년들이 주어진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도록 돕는 일은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관한 경험적 조사연구는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대부분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적 연구로서 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한 종단적 연구는 드물었다. 2003~2008년 기간 동안 본원에서 수행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n Youth Panel Survey; KYPS)는 청소년의 생활·행동·의식 전반에 대한 국내 최초의 종단조사로서 청소년 연구의 활성화와 관련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대상과 연구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에 표집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패널 총 7,071명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매년 조사 데이터의 일반 공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 데이터 분석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 6차년도인 올해에는 전년도에 실시한 제5차 조사결과의 데이터 클리닝을 완료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제5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학술대회,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등 학술행사를 개최하였고, 주요 조사결과를 정리한 데이터분석 보고서와 통계 브리프를 발간하였다. 그동안 연구에 도움을 주신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연구가 한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초기에 형성한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 KCYPS)의 중1 패널 제1차(2010년)~4차(2013년)년도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중1 패널의 2010년 1차년도 조사시 원표본 2,351명, 2차년도(2011년) 조사 성공사례 2,280명, 3차년도(2012년) 조사 성공사례 2,259명, 4차년도(2013년) 조사 성공사례 2,108명이 분석대상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1에서 고1까지 4년 동안 청소년의 학교생활 중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종단적 변화 수준에 개인차가 있었으며, 그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또래관계 형성 중 청소년의 의사소통 수준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모두의 초기치 수준과 관계가 있었다. 셋째, 또래관계 형성 중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적응의 초기 수준이 높았고, 또래관계 중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학습활동의 적응의 감소하더라도 그 수준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넷째, 또래관계 형성 중 의사소통과 신뢰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교우관계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소외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교우관계적응 수준이 낮았으며, 개인 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교우관계적응 정도가 감소하더라도 그 수준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 가족, 대인관계, 진로교육 체계에 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중학생,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 종단분석,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하위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청소년의 또래관계 형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 즉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학년 초기의 또래관계 형성이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청소년 개인의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 추이와 또래관계 형성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는 학년 변화에 따라 청소년 개개인의 학교생활적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추이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친구관계 형성이 학교생활적응을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중1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주요측정 변인은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이며, 또래관계는 의사소통, 신뢰형성, 소외감의 하위영역으로, 학교생활적응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첫째, 중1 패널의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초통계 분석과

변량분석(ANOVA), 사후검증(Bonferroni 사후검증법) 등의 통계적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은 또래관계 하위 3개 영역과 학교생활적응의 4개 하위 영역을 기준으로 성별, 도시규모, 가구소득 수준, 가족구성 별로 검증하였다.

-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정도의 개인 간 종단적 변화를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4년간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선택하여 그 적합성을 검증하고, 중1 학년의 또래관계가 4년 동안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변화 궤적을 구조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3. 주요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차년도 (2010년)를 기준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의 비율은 51.7%, 여학생의 비율은 48.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4차년도 (2013년)에도 남, 여학생의 비율은 각각 51.0%와 49.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전체적으로 도시규모는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절반이상 (56%~59%)이었고, 서울지역 거주 청소년의 비율은 1차년에 비해 4차년에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줄었다.
- 가구소득 수준별 집단은 대략 중위 소득집단 60%, 상위 20%, 하위 20%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 살펴보면, 부모자녀가정 즉 부모와 거주하는 중학생이 약 86% 정도였고,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 가정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약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 부모의 학력은 고졸 이상이 대부분으로 약 95% 정도가 고졸 또는 이상의 높은 학력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사례 수는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기타 보호자 (조부모 등)의 경우 중졸이하의 학력 정도가 8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주요변인의 변화 추이

- 또래관계 형성의 세부 요인에 따른 성별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의사소통과 신뢰형성에서 모두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는 것에 대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의사소통과 신뢰형성 모두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평균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한부모가정 청소년에 비해 또래와의 의사소통에 더 적극적이고 신뢰형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습활동적응과 관련하여 1차~4차 조사기간 동안 청소년의 평균 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활동적응 평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습활동적응에서 중3, 고1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수업시간에 재미있어하고, 숙제를 잘 해가고, 공부 시간에 딴 짓을 덜 하는 등의 학습활동적응에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규칙적응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평균은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규칙과 관련한 문항에 더 긍정적 또는 학교규칙을 잘 따르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우관계와 관련한 문항에 더 긍정적 또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잘 지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우관계와 관련한 문항에 더 긍정적, 즉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잘 생활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 교사관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평균은 중학교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으나, 고1학년 청소년의 평균은 중3 청소년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3)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

- 중1 패널 학습활동적응의 초기치의 개인 간 차이가 있었으며 4년 동안 학습활동적응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속도에 개인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1 패널 학교규칙적응의 초기치의 개인 간 차이가 있었으며 4년 동안 학교규칙적응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화속도에 개인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1 패널 교우관계적응의 초기치의 개인 간 차이가 있었으며 4년 동안 교우관계적응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속도에 개인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1 패널 교사관계적응의 초기치의 개인 간 차이가 있었으며 4년 동안 교사관계적응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속도에 개인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또래관계 중 의사소통과 학습활동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의 초기수준이 높고, 시간경과에 따라 학습활동의 감소율의 정도는 더디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 또래관계 중 의사소통과 교우관계의 초기값, 변화율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교우관계 초기수준이 높으며,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교우관계 부적응은 더디게 저하된다는 의미이다.
- 신뢰와 교우관계의 초기값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변화율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또래와의 신뢰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교우관계 초기수준은 높지만, 변화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 것을 의미한다.
- 또래관계 중 의사소통과 교사관계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 중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교사관계적응이 다른 학생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또래관계 중 신뢰의 경우는 초기값과의 관계는 유의하였지만 변화율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관계적응 초기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4. 정책제언

- 학교생활적응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은 학교생활부적응을 줄이는 과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통해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돕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돕고 부적응을 경험 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예방하는 정책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학교생활적응을 개인역량 강화, 가족관계 증진, 대인관계 증진, 진로교육 확대 등을 통해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한 교육 방향 및 세부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 학교생활적응을 돕고 부적응을 줄이는 세부 교육 및 프로그램은 학교 제도권 내에서 적용되고 활용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교 밖 환경인 사회, 가족, 산업 시스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다양하게 운영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고,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이론적 배경	7
1. 학교생활적응	9
1) 학교생활적응	9
2) 학교생활적응의 측정	10
3) 학교생활적응 관련 요인들	10
2. 학교생활적응과 또래관계	11
3. 연구문제의 설정	12
제3장 연구방법	13
1. 분석자료 및 대상	15
2. 주요 변인 및 측정 도구	16
3. 자료 분석 방법	19
제4장 연구결과	21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3
2. 주요변인의 변화 추이	25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25
2) 또래관계 형성	28
3) 학교생활 중 학습활동의 변화 추이	36
4) 학교생활 중 학교규칙의 변화 추이	45
5)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 변화 추이	53
6) 학교생활 중 교사관계 변화 추이	62
3.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	71
1) 학교생활적응-학습활동의 변화궤적	72

2) 학교생활적응-학교규칙의 변화궤적	74
3) 학교생활적응-교우관계의 변화궤적	76
4)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의 변화궤적	78
4.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80
1) 또래관계가 학습활동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81
2) 또래관계가 학교규칙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82
3) 또래관계가 교우관계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83
4) 또래관계가 교사관계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84
제5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87
1. 분석결과 요약	89
1) 연구대상의 특성	89
2) 또래관계 형성의 특성	89
3) 학교생활적응의 특성	90
4)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	91
5)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91
2. 정책제언	92
1) 청소년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92
2) 가족가치관 확립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	94
3)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5
4) 다양한 진로 교육 및 지도를 위한 제도적 지원	95
참고문헌	97
Abstract	101

표 목차

〈표 3-1〉 또래관계 형성의 측정문항과 내적일관성	16
〈표 3-2〉 학교생활적응 측정문항과 내적일관성	18
〈표 4-1〉 중1 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4
〈표 4-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	25
〈표 4-3〉 주요변인의 상관분석	26
〈표 4-4〉 중1 또래관계 형성의 요인별 결과	28
〈표 4-5〉 중1 또래관계 형성: 성별 차이	29
〈표 4-6〉 중1 또래관계 형성: 가족구성별 차이	31
〈표 4-7〉 중1 또래관계 형성: 도시규모별 차이	33
〈표 4-8〉 중1 또래관계 형성: 소득규모별 차이	34
〈표 4-9〉 학교생활-학습활동 변화 추이	36
〈표 4-10〉 학교생활-학습활동 변화 추이: 성별	37
〈표 4-11〉 학교생활-학습활동 변화 추이: 가족구성별	39
〈표 4-12〉 학교생활-학습활동 변화 추이: 도시규모별	41
〈표 4-13〉 학교생활-학습활동 변화 추이: 소득규모별	43
〈표 4-14〉 학교생활-학교규칙 변화 추이	45
〈표 4-15〉 학교생활-학교규칙 변화 추이: 성별	46
〈표 4-16〉 학교생활-학교규칙 변화 추이: 가족구성별	48
〈표 4-17〉 학교생활-학교규칙 변화 추이: 도시규모별	50
〈표 4-18〉 학교생활-학교규칙 변화 추이: 소득규모별	52
〈표 4-19〉 학교생활-교우관계 변화 추이	53
〈표 4-20〉 학교생활-교우관계 변화 추이: 성별	54
〈표 4-21〉 학교생활-교우관계 변화 추이: 가족구성별	56
〈표 4-22〉 학교생활-교우관계 변화 추이: 도시규모별	58
〈표 4-23〉 학교생활-교우관계 변화 추이: 소득규모별	60

〈표 4-24〉 학교생활-교사관계 변화 추이	62
〈표 4-25〉 학교생활-교사관계 변화 추이: 성별	63
〈표 4-26〉 학교생활-교사관계 변화 추이: 가족구성별	65
〈표 4-27〉 학교생활-교사관계 변화 추이: 도시규모별	67
〈표 4-28〉 학교생활-교사관계 변화 추이: 소득규모별	69
〈표 4-29〉 학교생활-학습활동의 무변화모형, 선형모형의 비교	72
〈표 4-30〉 학교생활-학교규칙의 무변화모형, 선형모형의 비교	74
〈표 4-31〉 학교생활-교우관계의 무변화모형, 선형모형의 비교	76
〈표 4-32〉 학교생활-교사관계의 무변화모형, 선형모형의 비교	78
〈표 4-33〉 또래관계가 학습활동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구조모형 적합도	81
〈표 4-34〉 또래관계가 학습활동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구조모형 경로계수	81
〈표 4-35〉 또래관계가 학교규칙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구조모형 적합도	82
〈표 4-36〉 또래관계가 학교규칙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구조모형 경로계수	82
〈표 4-37〉 또래관계가 교우관계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구조모형 적합도	83
〈표 4-38〉 또래관계가 교우관계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구조모형 경로계수	83
〈표 4-39〉 또래관계가 교사관계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구조모형 적합도	84
〈표 4-40〉 또래관계가 교사관계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구조모형 경로계수	84

그림 목차

【그림 4-1】 중1 또래관계 형성의 요인별 평균	28
【그림 4-2】 중1 또래관계 형성의 성별 차이	30
【그림 4-3】 중1 또래관계 형성의 가족구성별 차이	32
【그림 4-4】 중1 또래관계 형성의 도시규모별 차이	33
【그림 4-5】 중1 또래관계 형성의 소득규모 차이	35
【그림 4-6】 학교생활 중 학습활동의 평균 변화	36
【그림 4-7】 학교생활 중 학습활동의 평균: 성별차이	38
【그림 4-8】 학교생활 중 학습활동의 평균: 가구구성별 차이	40
【그림 4-9】 학교생활 중 학습활동의 평균: 도시규모별 차이	42
【그림 4-10】 학교생활 중 학습활동의 평균: 소득규모별 차이	44
【그림 4-11】 학교생활 중 학교규칙의 평균 변화	45
【그림 4-12】 학교생활 중 학교규칙의 평균: 성별 차이	47
【그림 4-13】 학교생활 중 학교규칙의 평균: 가족구성별 차이	49
【그림 4-14】 학교생활 중 학교규칙의 평균: 도시규모별 차이	51
【그림 4-15】 학교생활 중 학교규칙의 평균: 소득규모별 차이	52
【그림 4-16】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의 평균 변화	53
【그림 4-17】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의 평균: 성별 차이	55
【그림 4-18】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의 평균: 가족구성별 차이	57
【그림 4-19】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의 평균: 도시규모별 차이	59
【그림 4-20】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의 평균: 소득규모별 차이	61
【그림 4-21】 학교생활 중 교사관계의 평균 변화	62
【그림 4-22】 학교생활 중 교사관계의 평균: 성별 차이	64
【그림 4-23】 학교생활 중 교사관계의 평균: 가족구성별 차이	66
【그림 4-24】 학교생활 중 교사관계의 평균: 도시규모별 차이	68
【그림 4-25】 학교생활 중 교사관계의 평균: 소득규모별 차이	70
【그림 4-26】 무변화모형	71

【그림 4-27】 선형변화모형	71
【그림 4-28】 학습활동의 잠재성장모형	73
【그림 4-29】 학습활동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73
【그림 4-30】 학교규칙의 잠재성장모형	75
【그림 4-31】 학교규칙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75
【그림 4-32】 교우관계의 잠재성장모형	77
【그림 4-33】 교우관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77
【그림 4-34】 교사관계의 잠재성장모형	79
【그림 4-35】 교사관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79
【그림 4-36】 또래관계형성이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	80
【그림 5-1】 학교적응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변인과 개선 프로그램에 관한 모형	93

제 1 장



서 론

제 1 장
서론

1. 서론

학교라는 공간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주된 생활 영역이며 개인의 교육 및 건전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이자 체계이다. 중학생의 경우 평균 7~8시간 정도를 학교에서 생활하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평균적으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더 증가한다. 이는 하루 중 수면시간을 제외한다면, 학생들은 가정 보다 더 많은 시간, 즉 하루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한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청소년기의 학교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물리적 장소이며,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교육을 받고 친구 및 교사들과 관계를 맺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성장의 기회가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학교는 공부를 하는 장소라는 단순한 개념과 생활하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 청소년이 어떠한 심리·사회적 경험을 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간발달 주기 상 청소년 시기의 학교는 그 어느 발달 시기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간이며 체계이다. 가족이라는 체계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영유아기를 거쳐, 청소년 시기에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육받으며, 특히 또래들과 생활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를 가지게 된다. 곽수란(2006)에 의하면 가족, 학교, 사회가 청소년 시기의 대표적인 의미 있는 체계이며, 특히 학교체계의 비중이 다른 발달 과정보다 급격히 증가한다고 강조한다(김희진, 최장원, 이지현, Atteraya, 2012, 재인용). 즉, 학교는 가정과 함께 청소년의 주된 생활공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이며, 이 공간을 통해 학습하고 장래와 진로를 설계하고 친구 또는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곽미정, 문신용, 2011; 홍봉선, 남미애, 2010). 따라서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 정도는 이들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최근 연구는 청소년기의 비행과 범죄 등과 관련한 학교생활부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이혜경, 김현주, 2007). 그 이유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이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에 연루되어 학교를 떠나거나, 혹은 반대로 학업을 중단한 후 다른 비행이나 범죄에 연루되는 등의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로 최근 들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생활하도록 돕는 것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잘 적응한 청소년은 학교생활 이외의 요소인 개인의 생활 만족도가 높고, 학습 성과 향상도가 높고, 대인 관계에서도 긍정적 관계를 잘 맺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곽미정, 문신용, 2011; 이현철, 최성보, 2012; 조한익, 2012). 이는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청소년 문제 예방과 긍정적 발달 모두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요인들 중 가정환경, 개인의 성향, 학교 환경과 학교생활 만족도 등이 연구 되었으며, 최근의 연구들은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생들의 사회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모, 친구, 교사 등의 대인관계가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이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또는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김두환, 김지혜, 2011). 발달 주기 상 청소년에게 친구 또는 또래관계는 매우 중요한 사회관계 대상이며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다. 또한 학교 체계 안에서 친구 또는 또래는 청소년과 많은 시간을 공유하며 서로 영향을 줌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은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하위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청소년의 또래관계 형성이나 애착 형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 즉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요인들의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학년 초기의 또래관계 형성이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개인의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 추이와 또래관계 형성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는 학년 변화에 따라 청소년 개개인의 학교생활적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추이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친구관계 형성이 학교생활적응을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의의 및 목적과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배경이 되는 각 요인별 특성과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제 3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 및 대상에 대한 설명, 주요변인 및 측정도구에 대한 개요,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4장은 결과 분석을 제시한 장이다. 결과분석은 첫째, 각 요인의 기술통계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차이를 제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인 학교생활적응의 세부 요인을 나누고 이들의 종단적 변화 궤적을 모형을 통해 제시하였다. 셋째,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이들 관계를 살펴보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 5장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연구 요약 및 이를 통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학교생활적응
2. 학교생활적응과 또래관계
3. 연구문제의 설정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학교생활적응

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적응, 학교 규율에 대한 적응, 교사와 친구 관계 등의 요인을 포함하며, 학생이 학교라는 물리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 및 요소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요소의 활용 정도를 학교생활적응이라고 한다(김두환, 김지혜, 2011; 김혜금, 2015; 조한익, 2012; 천경민, 2010).

곽수란(2006)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 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학교라는 사회적 집단에 속한 청소년이어야 하고, 이들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고, 스스로도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만족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또래나 교사 등과 같은 학교 내 구성원들과 상호평가를 통해 역동적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할 때 잘 적응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응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반대로 학교생활부적응은 학교에서 청소년이 개인의 능력과 환경의 요구 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조절에 실패하여 학교에서 정한 혹은 청소년이 학교에 참석하면서 달성해야 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거나 또는 개인이 욕구불만 또는 갈등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한다(이혜경, 김현주, 2007).

종합적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청소년이 학교라는 환경에서 생기는 문제나 어려움을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잘 대처하는 것이다. 또한 또래나 교사와 같은 학교 환경 안에서 관계하는 타인과의 관계에 잘 적응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생활적응의 측정

학교적응도 또는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적응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학교 구성원간의 대인관계,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정도, 학교에 대한 태도, 가치 또는 인식, 학교규칙이나 규율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지를 측정한다. 다시 말해,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생활 만족도와 유사한 항목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연구자의 연구 주제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은 실제 학생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한다. 반면에 학교생활 만족도는 감정 또는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한다(김두환, 김지혜, 2011; 조한익, 201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동과 정서 모두에 초점을 두고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우선, 학습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잘 따르는지와 학교규칙에 잘 적응하고 따르는지를 측정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적응에 초점을 두고 교사와 교우와의 관계의 적응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3) 학교생활적응 관련 요인들

학교생활 부적응에 관한 연구경향을 분석한 이혜경과 김현주(2007)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90년에서 2006년 사이의 학교생활부적응과 관련한 연구는 이와 관련한 요인이 사회관계 요인, 개인내적 요인, 학업관련 요인, 진로관련 요인으로 나뉜다고 한다. 첫째,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은 개인내적 변인들로 불안,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자아개념, 우울, 분노, 성격유형 등이 있다. 둘째, 관계관련 요인은 대인관계기술, 부모관계, 형제관계, 교사관계, 또래관계 등이 있다. 셋째, 학업관련 요인은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적, 학교분위기, 학업성취도, 학업곤란, 학업스트레스, 학교생활태도 등이 있다. 넷째, 진로관련 요인은 진로정체감,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등이 있다. 학교생활 부적응과 반대 개념인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연구들도 위와 관련한 요인들로 요약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최근 연구들은 개인내적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발달 단계상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대인관계가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김두환, 김지혜, 2011; 김영춘, 정민숙, 2012; 천유리, 한기순, 2012).

이에 또래관계 형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및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단순히 청소년이 학교에 잘 다니고 공부를 잘 하는 적응도 이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 변화를 종단분석 한 이현철과 최성보(2012)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교우관계, 교사관계와 같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변인들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이 높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학교관련 변인들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임이 밝혀졌다. 즉,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청소년의 경우 이들의 학교생활적응도는 생활만족도 또는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광미정과 문신용(2011)의 연구에서도,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즉,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고등학생일수록 개인, 대인관계,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하고 적응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정도가 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긍정적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 결과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가질 것이다.

2. 학교생활적응과 또래관계

청소년이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대상은 주로 부모, 교사, 친구 또는 또래 집단이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의 대인관계 대상 중 또래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과 이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학교생활적응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김두환과 김지혜(2011)의 연구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며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친구관계를 포함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친구와의 관계가 원활하고 관계에 만족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유리와 한기순(2012)의 연구 결과에서도 또래관계를 잘 유지하는

아동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밝혀졌다. 흥미롭게도 천경민(2010)의 연구는 집단따돌림 경험이 있는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대인관계 기술이 낮고, 이러한 낮은 대인관계 기술은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청소년의 주요 대인관계 대상인 또래는 개인에게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며 청소년의 긍정적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이고 많은 시간을 친구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또래 집단은 청소년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 대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부모-자녀 관계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에 비해 또래관계와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특히 학년 초기에 맺은 또래관계가 향후 학교생활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관계 주요 대상인 또래와의 관계 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것이다.

3. 연구문제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분산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를 밝히고, 종단연구법인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궤적과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가족구성별, 도시규모별, 소득분위별)에 따라 청소년의 또래관계 형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가족구성별, 도시규모별, 소득분위별)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은 시간은 흐름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의 또래관계 형성은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3 장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2. 주요변인 및 측정 도구
3. 자료 분석 방법

제 3 장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라 함)의 자료 중 중1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첫째, 청소년의 학년 초기 또래관계 형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연도별 추이 변화를 살펴보고, 둘째,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관계를 종단적 변화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 1차년도 조사를 시작하여 2016년까지 7년간의 청소년의 심리, 신체, 사회적 발달에 관한 조사를 위한 패널 조사 연구이다. KCYPS는 초1 패널, 초4 패널, 중1 패널의 3개 패널로 구성되었다. 초1 패널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초4 패널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중1 패널은 중학교 1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이들 청소년의 발달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원이 개별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패널 당 약 2,300여명의 청소년이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분석된 중1 패널의 청소년은 2010년 1차년도 조사시 원표본 2,351명, 2차년도(2011년) 조사 성공사례 2,280명, 3차년도(2012년) 조사 성공사례 2,259명, 4차년도(2013년) 조사 성공사례 2,108명이 대상이다.

청소년의 또래관계 형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문항은 KCYPS 조사 문항 구성표(이종원 외, 2013)에 근거하여 세부 영역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1 패널 자료 중 중학교 1학년(2010년), 중학교 2학년(2011년), 중학교 3학년(2012년), 고등학교 1학년(2013년)의 4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2. 주요 변인 및 측정 도구

1) 주요변인별 측정도구

(1) 또래관계 형성

학년 초기 청소년의 또래관계 형성에 관한 분석 자료는 중1 패닐의 중학교 1학년(2010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래관계 형성에 관한 설문문항은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3개 세부 요인으로 나뉜다.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요인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코딩북」에 기록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요인별 평균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3-1>은 또래관계 형성에 관한 각 요인과 해당하는 측정문항 그리고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을 나타낸다.

요인별로 또래관계 중 의사소통과 신뢰형성 요인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혹은 신뢰형성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또래관계 중 소외감 요인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 또래관계 형성의 측정문항과 내적일관성

요인	측정문항	신뢰도
또래관계-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78
또래관계-신뢰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76
또래관계-소외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63

(2)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측정은 총19개 문항으로 구성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였으며, 4개 하위 영역인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로 나누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1 패닐의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중1학년(2010년), 중2학년(2011년), 중3학년(2012년), 고1학년(2013년)의 4개년도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중 학습활동과 관련한 측정문항은 총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년도(2010년)조사부터 4차년도(2013)조사까지의 문항신뢰도는 각각 .72, .71, .75, .75 으로 문항신뢰도는 4차 조사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학교규칙과 관련한 측정문항은 총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신뢰도는 각각 .71, .79, .79, .77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교우관계와 관련한 측정문항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신뢰도는 각각 .61, .69, .70, .70 으로 다른 요인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4년의 조사기간 동안 신뢰도 수준은 유지 혹은 향상되었다. 교사관계와 관련한 문항은 5개 문항으로 각각 .83, .84, .85, .82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 신뢰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4년의 조사기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요인별 평균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2>는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각 요인과 해당하는 측정문항 그리고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을 나타낸다.

표 3-2 학교생활적응 측정문항과 내적일관성

요인	측정문항	신뢰도			
		1차	2차	3차	4차
학습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역코딩) 	.72	.71	.75	.75
학교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71	.79	.79	.77
교우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61	.69	.70	.70
교사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83	.84	.85	.82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첫째, 중1 패널의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초통계 분석과 변량분석(ANOVA), 사후검증(Bonferroni 사후검증법) 등의 통계적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은 또래관계 하위 3개 영역과 학교생활적응의 4개 하위 영역을 기준으로 성별, 가족구성, 도시규모, 가구소득 수준 별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는 SPSS 20.0을 사용하여 통계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개인 간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4년간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선택하여 그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중1 학년의 또래관계 형성이 중1에서 고1에 걸쳐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변화 궤적을 구조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잠재성장모형과 구조모형 검증은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RMSEA, CFI, NFI 지수를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혹은 그 이상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상이면 보통 적합도 라고 해석할 수 있다. CFI와 NFI는 0~1의 수치로 표현되며 보통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지수라고 해석 가능하다.

제 4 장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주요변인의 변화 추이
3.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
4.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제 4 장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1 패널은 2010년 당시 중학교 1학년 중에서 층화다단계추출 방법으로 표집된 약 2,300여명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는 총 7개년에 걸친 종단조사를 계획하였으며, 조사는 매년 10월부터 11월 중에 조사원이 학생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중1 패널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1차년도 조사 원표본은 2,351명, 2011년 2차년도 조사 성공사례는 2,280명, 2012년 3차년도 조사 성공사례는 2,259명, 2013년 4차년도 조사 성공사례는 2,108명 이었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중1 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1차년도 (2010)를 기준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의 비율은 51.7%, 여학생의 비율은 48.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4차년도 (2013)년에도 남, 여학생의 비율은 각각 51.0%와 49.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도시규모는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절반이상 (56%~59%)이었고, 서울지역 거주 청소년의 비율은 1차년에 비해 4차년에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

가구소득 수준별 집단¹⁾은 대략 중위 소득집단 60%, 상위 20%, 하위 20%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 살펴보면, 부모자녀가정 즉 부모와 거주하는 중학생이 약 86% 정도였고,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 가정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약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 이상이 대부분으로 약 95% 정도가 고졸 또는 이상의 높은 학력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사례 수는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기타 보호자 (조부모 등)의 경우 중졸이하의 학력 정도가 8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1) 본 조사가 특정 연령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시기인 2010년 가구소득 수준을 10분위수로 나눈 후, 상위 20%는 상위 집단, 하위 20%는 하위 소득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4-1 중1 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2014년(고1)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215	51.7	1185	52.0	1174	52.0	1075	51.0	
	여자	1136	48.3	1095	48.0	1085	48.0	1033	49.0	
	전체	2351	100.0	2280	100.0	2259	100.0	2108	100.0	
도시규모	서울	408	17.3	376	17.3	366	16.9	179	8.5	
	광역시	626	26.6	592	27.2	591	27.2	681	32.3	
	시군구	1317	56.0	1210	55.6	1213	55.9	1248	59.2	
	전체	2351	100.0	2178	100.0	2170	100.0	2108	100.0	
가구소득수준	저	436	19.7	418	19.5	418	19.6	429	21.5	
	중	1375	62.1	1,337	62.2	1,330	62.4	1231	61.6	
	고	402	18.2	394	18.3	385	18.0	337	16.9	
	전체	2214	100.0	2150	100.0	2133	100.0	1997	100.0	
가족구성	부모자녀	2031	86.5	1932	89.5	1905	87.9	1815	86.2	
	한부모가정	282	12.0	207	9.6	238	11.0	256	12.2	
	조손가정및기타	36	1.5	20	0.9	25	1.1	35	1.7	
	전체	2348	100.0	2159	100.0	2168	100.0	2106	100.0	
부모학력	부	중졸 이하	69	3.2	65	3.2	72	3.6	74	3.9
		고졸	908	41.9	772	38.3	781	38.9	791	41.4
		전문대졸	265	12.2	208	10.3	199	9.9	195	10.2
		대졸	786	36.3	874	43.3	847	42.2	763	40.0
		대학원졸	139	6.4	99	4.9	109	5.4	86	4.5
		전체	2167	100.0	2018	100.0	2008	100.0	1909	100.0
	모	중졸 이하	72	3.3	58	2.8	68	3.3	60	3.1
		고졸	1245	56.6	1085	53.1	1080	53.0	1043	54.2
		전문대졸	272	12.4	206	10.1	196	9.6	205	10.6
		대졸	549	25.0	651	31.8	656	32.2	588	30.5
		대학원졸	60	2.7	44	2.2	38	1.9	29	1.5
		전체	2199	100.0	2044	100.0	2038	100.0	1925	100.0
	기타보호자	중졸 이하	15	77.1	22	77.1	18	72.9	16	80.0
		고졸	3	15.1	5	18.5	7	27.1	4	20.0
		전문대졸	-	-	-	-	-	-	-	-
		대졸	-	-	1	4.4	-	-	-	-
		대학원졸	2	7.9	-	-	-	-	-	-
		전체	20	100.0	28	100.0	24	100.0	20	100.0

2. 주요변인의 변화 추이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4-2>와 같다. 각 변수들의 정규분포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왜도와 첨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의 수치가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

변인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중1_또래애착:의사소통	2348	1.00	4.00	2.90	.59	-.31	.91
중1_또래애착:신뢰	2348	1.00	4.00	3.03	.63	-.46	.38
중1_또래애착:소외	2348	1.00	4.00	2.02	.64	.49	.27
중1_학습활동	2351	1.00	4.00	2.73	.50	-.24	.45
중2_학습활동	2280	1.00	4.00	2.73	.52	-.24	.45
중3_학습활동	2259	1.00	4.00	2.74	.53	-.30	.54
고1_학습활동	2080	1.00	4.00	2.78	.49	-.21	.80
중1_학교규칙	2351	1.00	4.00	2.76	.49	-.14	.61
중2_학교규칙	2280	1.00	4.00	2.79	.56	-.12	.64
중3_학교규칙	2259	1.00	4.00	2.86	.54	-.13	.85
고1_학교규칙	2080	1.00	4.00	2.94	.49	-.05	.80
중1_교우관계	2350	1.00	4.00	2.98	.46	-.24	.80
중2_교우관계	2280	1.00	4.00	3.06	.49	-.27	.88
중3_교우관계	2259	1.00	4.00	3.12	.45	-.20	1.10
고1_교우관계	2080	1.00	4.00	3.14	.42	.03	.63
중1_교사관계	2350	1.00	4.00	2.71	.67	-.16	-.12
중2_교사관계	2280	1.00	4.00	2.80	.66	-.14	-.13
중3_교사관계	2259	1.00	4.00	2.89	.63	-.13	.06
고1_교사관계	2080	1.00	4.00	2.88	.58	-.00	.10

주요 변인의 상관계수는 <표 4-3>과 같다.

표 4-3 주요변인의 상관분석

변인	1	2	3	4	5	6	7	8	9
1.중1_또래:소통	1								
2.중1_또래:소외	-.28**	1							
3.중1_또래:신뢰	.74**	-.37**	1						
4.중1_학습활동	.28**	-.15**	.25**	1					
5.중2_학습활동	.23**	-.10**	.19**	.54**	1				
6.중3_학습활동	.23**	-.12**	.21**	.50**	.55**	1			
7.고1_학습활동	.18**	-.11**	.16**	.39**	.42**	.49**	1		
8.중1_학교규칙	.18**	-.03	.14**	.50**	.34**	.30**	.22**	1	
9.중2_학교규칙	.13**	.00	.11**	.33**	.51**	.35**	.24**	.43**	1
10.중3_학교규칙	.11**	-.02	.10**	.28**	.35**	.49**	.26**	.40**	.44**
11.고1_학교규칙	.10**	-.01	.06**	.25**	.28**	.32**	.47**	.34**	.33**
12.중1_교우관계	.51**	-.23**	.48**	.40**	.29**	.27**	.19**	.33**	.19**
13.중2_교우관계	.31**	-.16**	.32**	.27**	.40**	.29**	.18**	.17**	.38**
14.중3_교우관계	.27**	-.13**	.29**	.22**	.27**	.38**	.21**	.13**	.16**
15.고1_교우관계	.27**	-.16**	.28**	.21**	.22**	.26**	.43**	.14**	.14**
16.중1_교사관계	.21**	-.06**	.18**	.41**	.27**	.23**	.16**	.40**	.22**
17.중2_교사관계	.18**	-.05*	.17**	.26**	.43**	.27**	.18**	.23**	.46**
18.중3_교사관계	.20**	-.05*	.17**	.25**	.29**	.40**	.25**	.22**	.25**
19.고1_교사관계	.13**	-.08**	.14**	.20**	.19**	.23**	.40**	.16**	.19**

변인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중1_또래:소통										
2.중1_또래:소외										
3.중1_또래:신뢰										
4.중1_학습활동										
5.중2_학습활동										
6.중3_학습활동										
7.고1_학습활동										
8.중1_학교규칙										
9.중2_학교규칙										
10.중3_학교규칙	1									
11.고1_학교규칙	.39**	1								
12.중1_교우관계	.17**	.09**	1							
13.중2_교우관계	.19**	.12**	.44**	1						
14.중3_교우관계	.34**	.13**	.38**	.40**	1					
15.고1_교우관계	.17**	.38**	.34**	.32**	.36**	1				
16.중1_교사관계	.19**	.12**	.27**	.13**	.12**	.13**	1			
17.중2_교사관계	.26**	.18**	.22**	.39**	.19**	.19**	.32**	1		
18.중3_교사관계	.39**	.25**	.21**	.23**	.40**	.23**	.30**	.39**	1	
19.고1_교사관계	.15**	.38**	.17**	.19**	.16**	.47**	.22**	.31**	.31**	1

주)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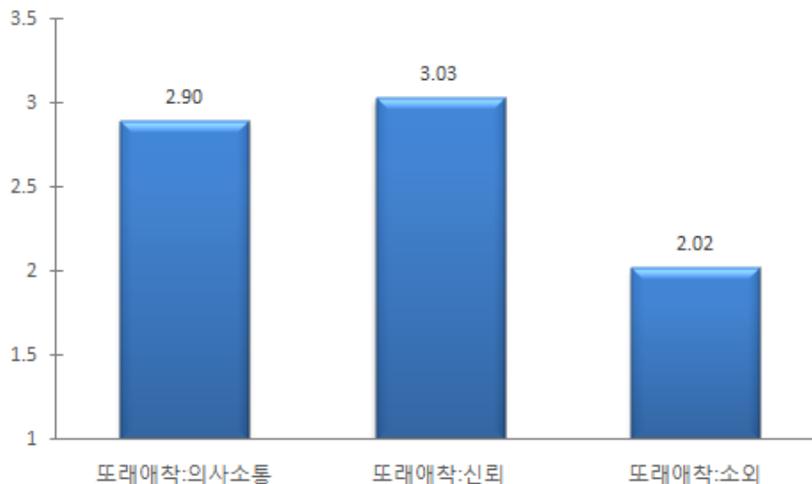
2) 또래관계 형성

(1) 또래관계 형성의 요인별 결과

또래관계 형성은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0년도에 실시하였으며, 세부 요인은 의사소통, 신뢰형성, 소외감으로 나뉜다. 중1 청소년의 또래관계 중 의사소통의 평균은 2.90점, 신뢰형성은 3.03점, 소외감은 2.02점이었다(<표 4-4>, [그림 4-1] 참고).

표 4-4 중1 또래관계 형성의 요인별 결과

구 분	사례수	중1학년 (2010년)	
		평균	표준편차
또래관계-의사소통	2348	2.90	.59
또래관계-신뢰형성	2348	3.03	.63
또래관계-소외감	2348	2.02	.64



【그림 4-1】 중1 또래관계 형성의 요인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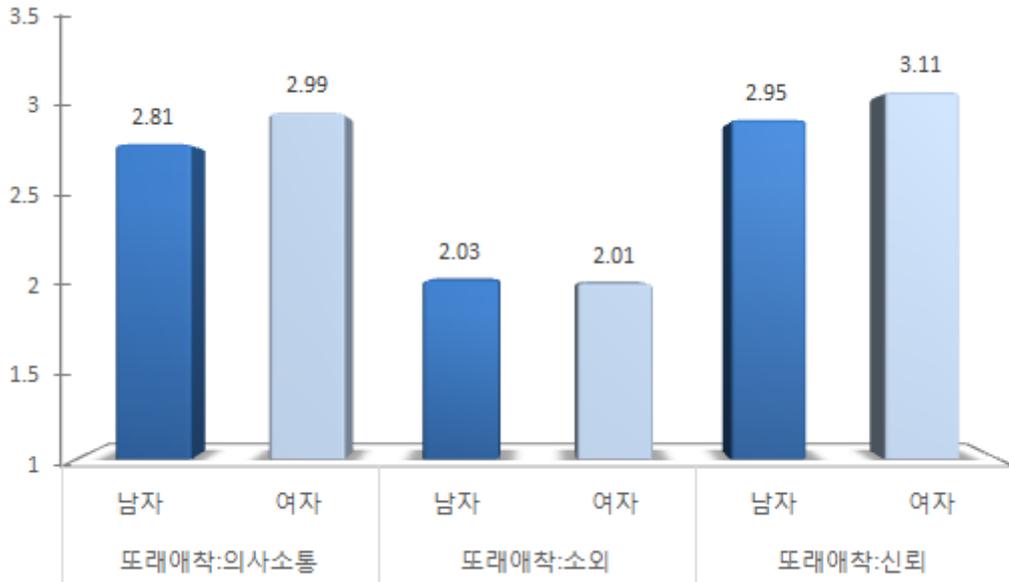
(2) 또래관계 형성의 요인별 성별 차이

또래관계 형성의 세부 요인에 따른 성별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의사소통과 신뢰형성에서 성별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57.49, p<.001$; $F=41.01, p<.001$), 소외감 경험에서는 성별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0, p>.10$), (<표 4-5> 참고). 의사소통과 신뢰형성에서 모두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는 것에 대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4-5 중1 또래관계 형성: 성별 차이

구 분	사례수	중1학년 (2010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또래관계-의사소통	남	1173	2.81	57.49***	녀>남
	녀	1175	2.99		
또래관계-소외	남	1173	2.03	.20	-
	녀	1175	2.01		
또래관계-신뢰형성	남	1173	2.95	41.01***	녀>남
	녀	1175	3.11		

주) *** $p<.001$; ** $p<.01$; * $p<.05$



【그림 4-2】 중1 또래관계 형성의 성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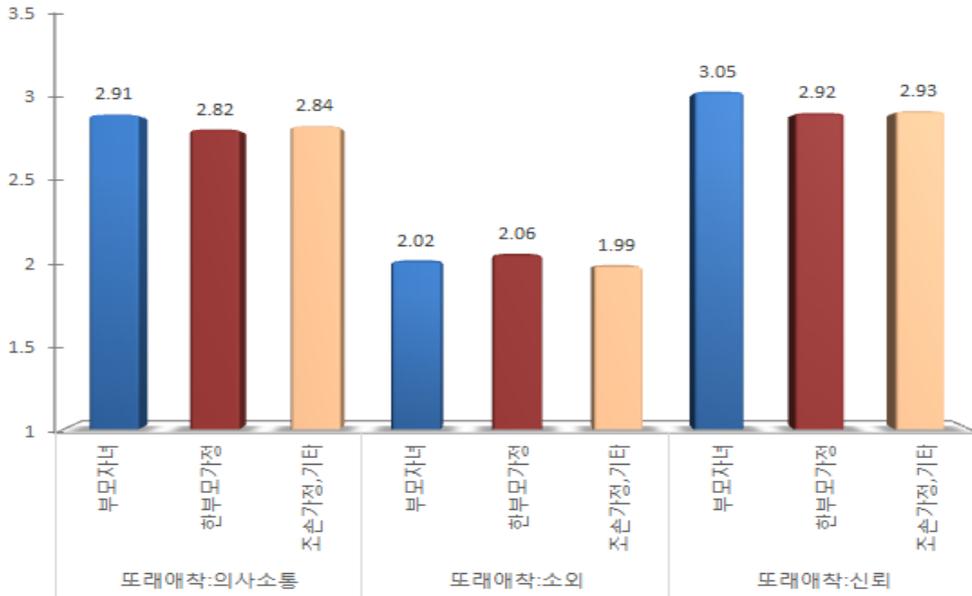
(3) 또래관계 형성의 요인별 가족구성별 차이

또래관계 형성의 세부 요인에 따른 가족구성별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의사소통과 신뢰형성에서 가족구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3.13, p<.05$; $F=5.26, p<.05$), 소외감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65, p>.10$), (<표 4-6>참고). 사후검증을 통해 가족구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과 신뢰형성 모두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평균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한부모가정 청소년에 비해 또래와의 의사소통에 더 적극적이고 신뢰형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중1 또래관계 형성: 가족구성별 차이

구 분	사례수	중1학년 (2010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또래관계-의사소통	부모자녀	2026	2.91	.59	3.13*	부모자녀>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283	2.82	.60		
	조손가정 및 기타	37	2.84	.68		
또래관계-소외	부모자녀	2026	2.02	.63	.65	-
	한부모가정	283	2.06	.67		
	조손가정 및 기타	37	1.99	.78		
또래관계-신뢰	부모자녀	2026	3.05	.63	5.26**	부모자녀>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283	2.92	.68		
	조손가정 및 기타	37	2.93	.70		

주)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4-3】 중1 또래관계 형성의 가족구성별 차이

(4) 또래관계 형성의 요인별 도시규모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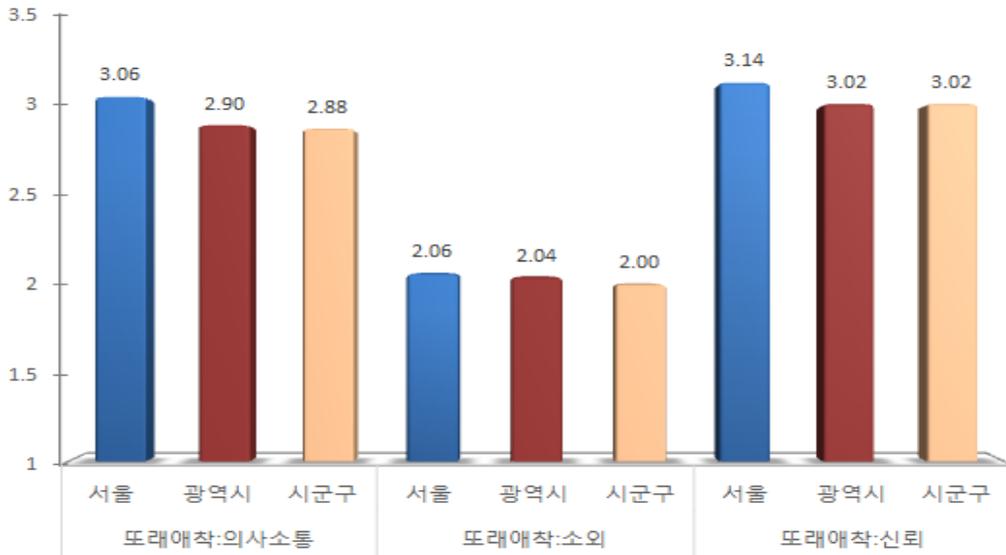
또래관계 형성의 세부 요인에 따른 도시규모별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의사소통과 신뢰형성에서 도시규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9.43, p<.001$; $F=4.09, p<.05$), 소외감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63, p>.10$), (<표 4-7> 참고).

사후검증을 통해 도시규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과 신뢰형성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평균이 광역시나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서울시 거주 청소년이 타 지역 거주 청소년보다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신뢰형성에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중1 또래관계 형성: 도시규모별 차이

구 분	사례수	중1학년 (2010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또래관계-의사소통	서울	234	3.06	9.43***	서울)광역시, 시군구
	광역시	761	2.90		
	시군구	1353	2.88		
또래관계-소외	서울	234	2.06	1.63	-
	광역시	761	2.04		
	시군구	1353	2.00		
또래관계-신뢰	서울	234	3.14	4.09*	서울)광역시, 시군구
	광역시	761	3.02		
	시군구	1353	3.02		

주)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4-4】 중1 또래관계 형성의 도시규모별 차이

(5) 또래관계 형성의 요인별 소득규모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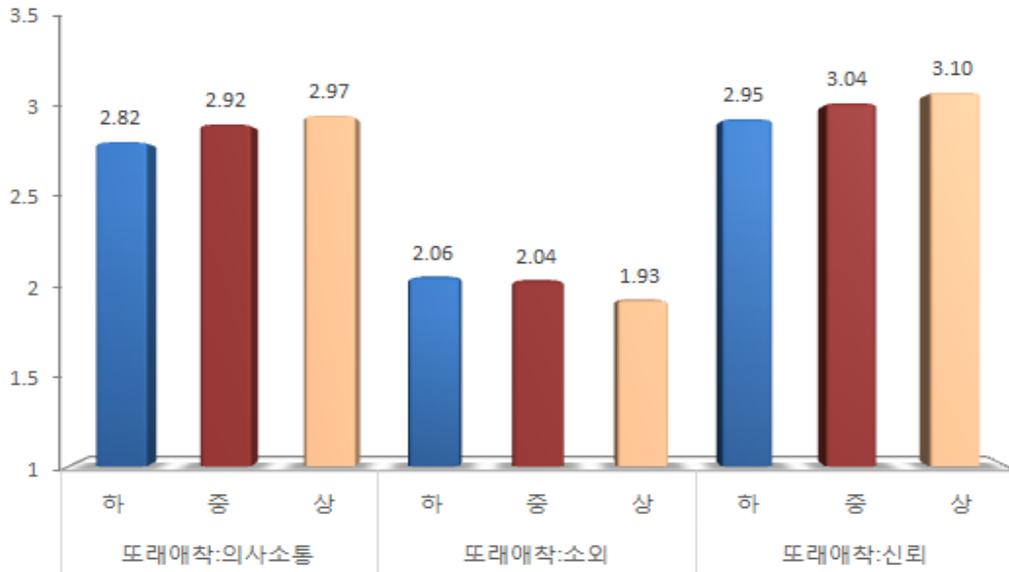
또래관계 형성의 세부 요인에 따른 소득규모별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의사소통, 신뢰형성, 소외감 모두에서 소득규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7.47, p<.01$; $F=6.13, p<.01$; $F=4.81, p<.01$); (<표 4-8> 참고).

사후검증을 통해 소득규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과 신뢰형성에서 상위와 중위 소득그룹에 속한 청소년이 하위 소득그룹에 속한 청소년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소외감의 경우, 하위 및 중위 소득그룹에 속한 청소년이 상위 소득그룹에 속한 청소년에 비해 소외감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표 4-8 중1 또래관계 형성: 소득규모별 차이

구 분	사례수	중1학년 (2010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또래관계-의사소통	상	382	2.97	.60	7.47**	상, 중>하
	중	1367	2.92	.58		
	하	467	2.82	.58		
또래관계-소외	상	382	1.93	.62	4.81**	하, 중>상
	중	1367	2.04	.65		
	하	467	2.06	.63		
또래관계-신뢰	상	382	3.10	.66	6.13**	상, 중>하
	중	1367	3.04	.62		
	하	467	2.95	.65		

주) *** $p<.001$; ** $p<.01$; * $p<.05$



【그림 4-5】 중1 또래관계 형성의 소득규모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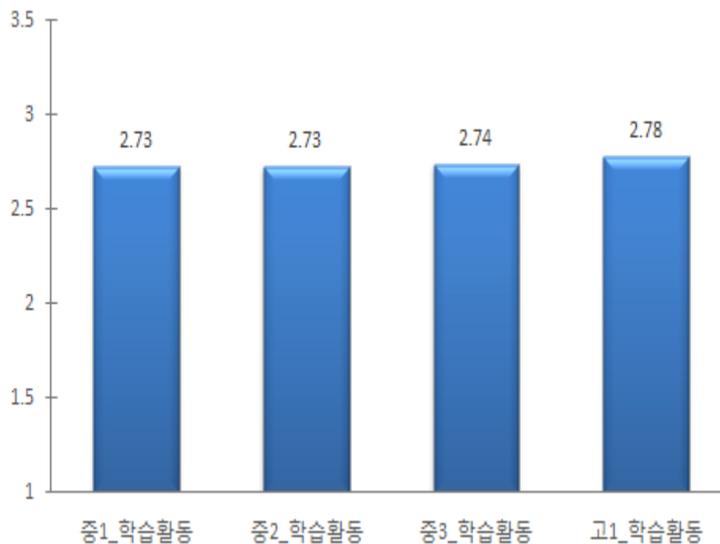
3) 학교생활 중 학습활동의 변화 추이

(1) 학습활동적응의 변화 추이

중1 패널 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추이를 <표 4-9>에 제시하였다. 학습활동적응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평균 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활동적응 평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학교생활-학습활동 변화 추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2351	2.73	.50
중2학년 (2011년)	2280	2.73	.52
중3학년 (2012년)	2259	2.74	.53
고1학년 (2013년)	2080	2.78	.49



【그림 4-6】 학교생활 중 학습활동의 평균 변화

(2) 학습활동적응의 변화 추이: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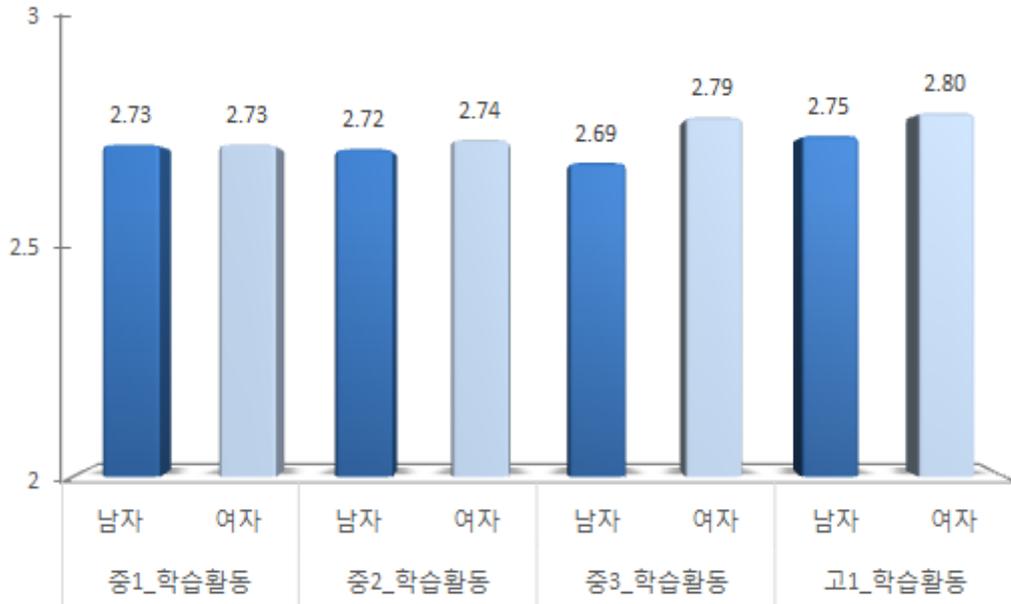
학습활동에 적응하는 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성별로 살펴보았으며 분산분석 결과는 <표 4-10>에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F=.01, p>.10; F=.79, p>.10$),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학습활동적응정도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8.28, p<.001; F=5.17, p<.05$).

사후검증결과 중3, 고1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수업시간을 재미있어하고, 숙제를 잘 해가고, 공부 시간에 딴 짓을 덜 하는 등의 학습활동적응에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학교생활-학습활동 변화 추이: 성별

구 분	사례수	학교생활-학습활동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남	1176	2.73	.01	-
	녀	1175	2.73		
중2학년 (2011년)	남	1152	2.72	.79	-
	녀	1128	2.74		
중3학년 (2012년)	남	1140	2.69	18.28***	녀>남
	녀	1119	2.79		
고1학년 (2013년)	남	1059	2.75	5.17*	녀>남
	녀	1021	2.80		

주) *** $p<.001$; ** $p<.01$; * $p<.05$



【그림 4-7】 학교생활 중 학습활동의 평균: 성별차이

(3) 학습활동적응의 변화 추이: 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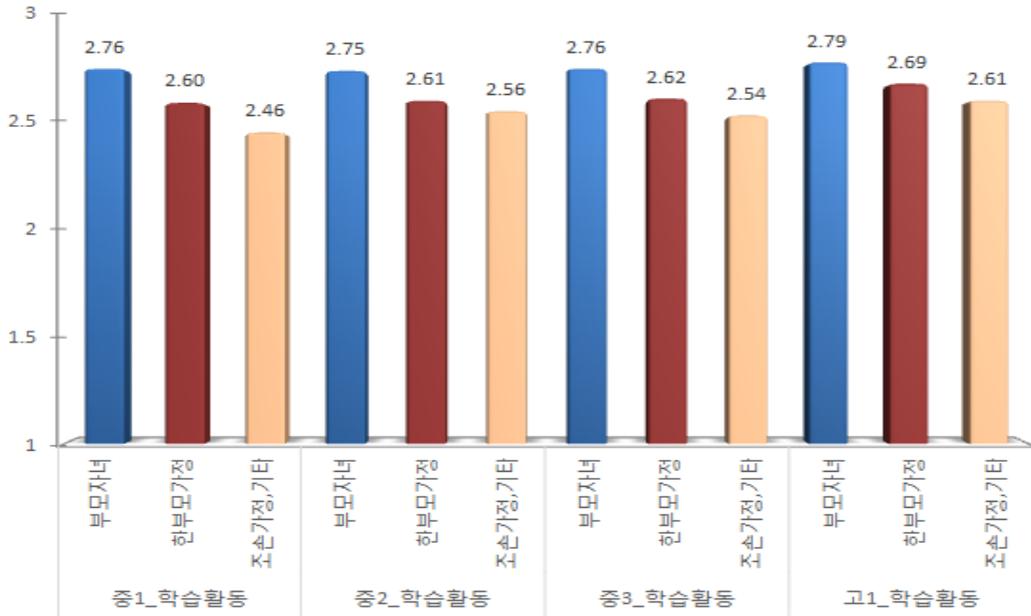
학습활동에 적응하는 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가족구성별로 살펴보았으며 분산분석 결과는 <표 4-11>에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가족구성별 학습활동적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8.54, p<.001$; $F=10.86, p<.001$; $F=11.88, p<.001$; $F=6.46, p<.01$).

사후검증결과 4년간 가족구성별 통계적 차이의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의 그룹이 타 그룹(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및 기타)의 청소년에 비해 학습활동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학교생활-학습활동 변화 추이: 가족구성별

구 분	사례수	학교생활-학습활동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부모자녀	2028	2.76	.50	18.54***	부모자녀)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및 기타
	한부모가정	284	2.60	.49		
	조손가정 및 기타	37	2.46	.53		
중2학년 (2011년)	부모자녀	1969	2.75	.52	10.86***	부모자녀)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및 기타
	한부모가정	273	2.61	.53		
	조손가정 및 기타	36	2.56	.56		
중3학년 (2012년)	부모자녀	1947	2.76	.52	11.88***	부모자녀)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및 기타
	한부모가정	273	2.62	.59		
	조손가정 및 기타	37	2.54	.46		
고1학년 (2013년)	부모자녀	1793	2.79	.49	6.46**	부모자녀)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및 기타
	한부모가정	252	2.69	.54		
	조손가정 및 기타	33	2.61	.45		

주)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4-8】 학교생활 중 학습활동의 평균: 가구구성별 차이

(4) 학습활동적응의 변화 추이: 도시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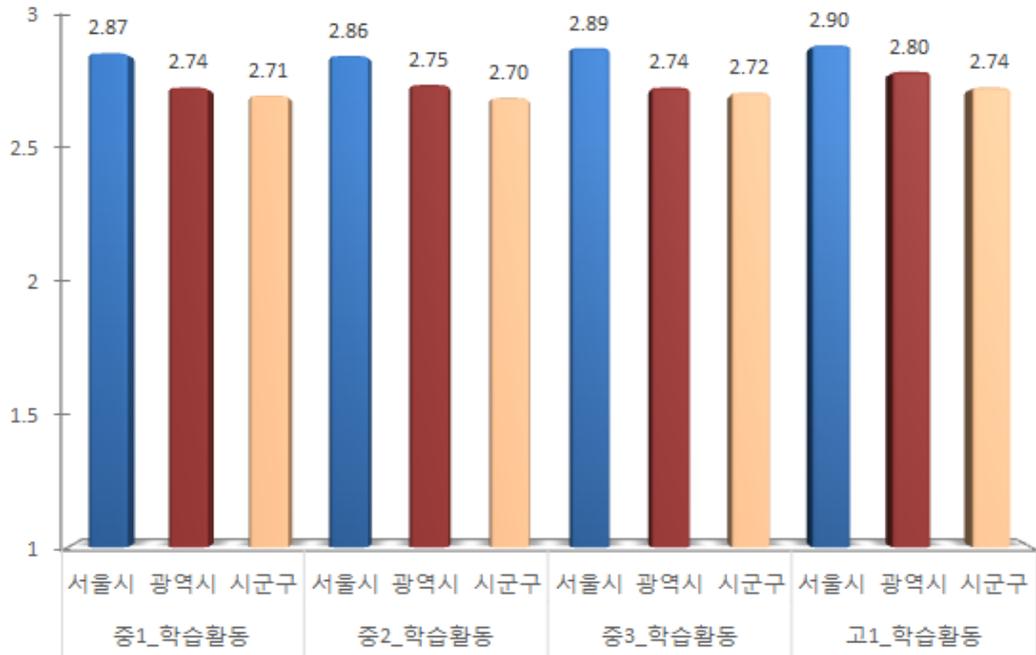
학습활동에 적응하는 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도시규모별로 살펴보았으며 분산분석 결과는 <표 4-12>에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도시규모별 학습활동적응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0.64, p<.001$; $F=10.39, p<.001$; $F=8.93, p<.001$; $F=8.50, p<.001$).

사후검증결과 4년간 가족구성별 통계적 차이의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서울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타 그룹(광역시, 시군구) 거주 청소년에 비해 학습활동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학교생활-학습활동 변화 추이: 도시규모별

구 분	사례수	학교생활-학습활동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서울	234	2.87	.54	10.64***	서울시)광역시, 시군구
	광역시	761	2.74	.49		
	시군구	1356	2.71	.49		
중2학년 (2011년)	서울	221	2.86	.51	10.39***	서울시)광역시, 시군구
	광역시	732	2.75	.51		
	시군구	1327	2.70	.53		
중3학년 (2012년)	서울	211	2.89	.51	8.93***	서울시)광역시, 시군구
	광역시	730	2.74	.53		
	시군구	1318	2.72	.53		
고1학년 (2013년)	서울	178	2.90	.50	8.50***	서울시)광역시, 시군구
	광역시	672	2.80	.49		
	시군구	1230	2.74	.49		

주)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4-9】 학교생활 중 학습활동의 평균: 도시규모별 차이

(5) 학습활동적응의 변화 추이: 소득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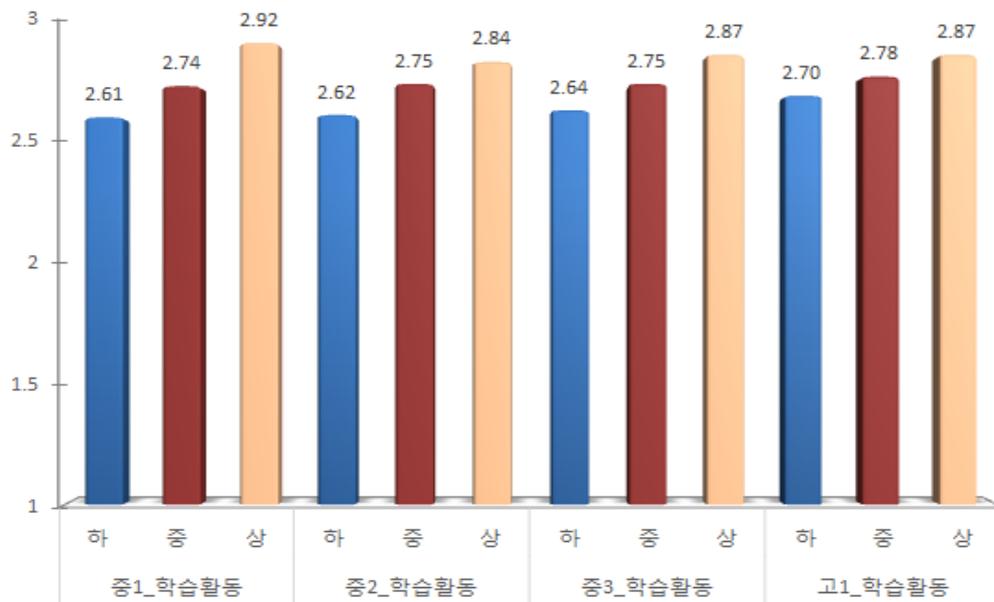
학습활동에 적응하는 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소득규모별로 살펴보았으며 분산분석 결과는 <표 4-13>에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소득규모별 학습활동적응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2.52, p<.001$; $F=18.61, p<.001$; $F=18.93, p<.001$; $F=10.89, p<.001$).

사후검증결과 4년간 소득규모별 통계적 차이의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소득 상위 그룹에 속한 청소년이 타 그룹(중위 및 하위 그룹)에 속한 청소년에 비해 학습활동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학교생활-학습활동 변화 추이: 소득규모별

구 분	사례수	학교생활-학습활동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상	383	2.92	.49	42.52***	상>중>하
	중	1368	2.74	.49		
	하	468	2.61	.49		
중2학년 (2011년)	상	375	2.84	.54	18.61***	상>중>하
	중	1334	2.75	.52		
	하	447	2.62	.50		
중3학년 (2012년)	상	367	2.87	.49	18.93***	상>중>하
	중	1322	2.75	.54		
	하	449	2.64	.53		
고1학년 (2013년)	상	334	2.87	.52	10.89***	상>중>하
	중	1212	2.78	.48		
	하	425	2.70	.50		

주)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4-10】 학교생활 중 학습활동의 평균: 소득규모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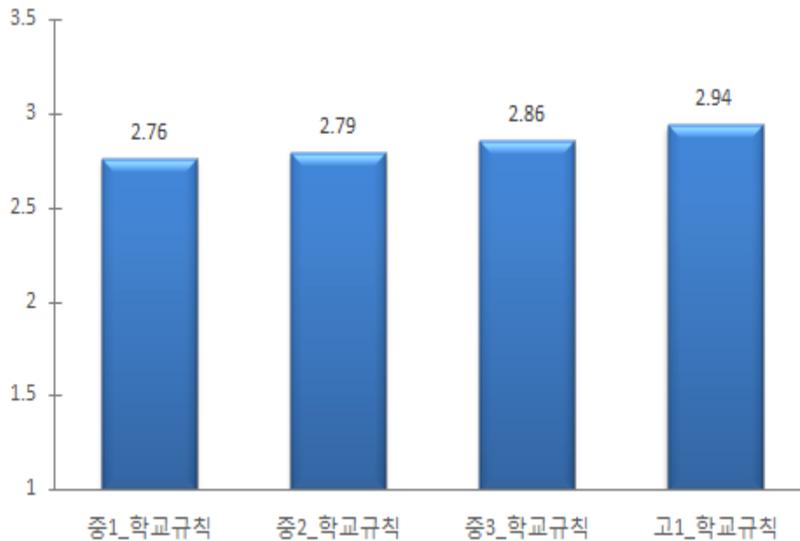
4) 학교생활 중 학교규칙의 변화 추이

(1) 학교규칙적응의 변화 추이

중1 패널 청소년의 학교규칙 변화 추이를 <표 4-14>에 제시하였다. 학교규칙적응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평균은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규칙과 관련한 문항에 더 긍정적 또는 학교규칙을 잘 따르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학교생활-학교규칙 변화 추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2351	2.76	.49
중2학년 (2011년)	2280	2.79	.56
중3학년 (2012년)	2259	2.86	.54
고1학년 (2013년)	2080	2.94	.49



【그림 4-11】 학교생활 중 학교규칙의 평균 변화

(2) 학교규칙적응의 변화 추이: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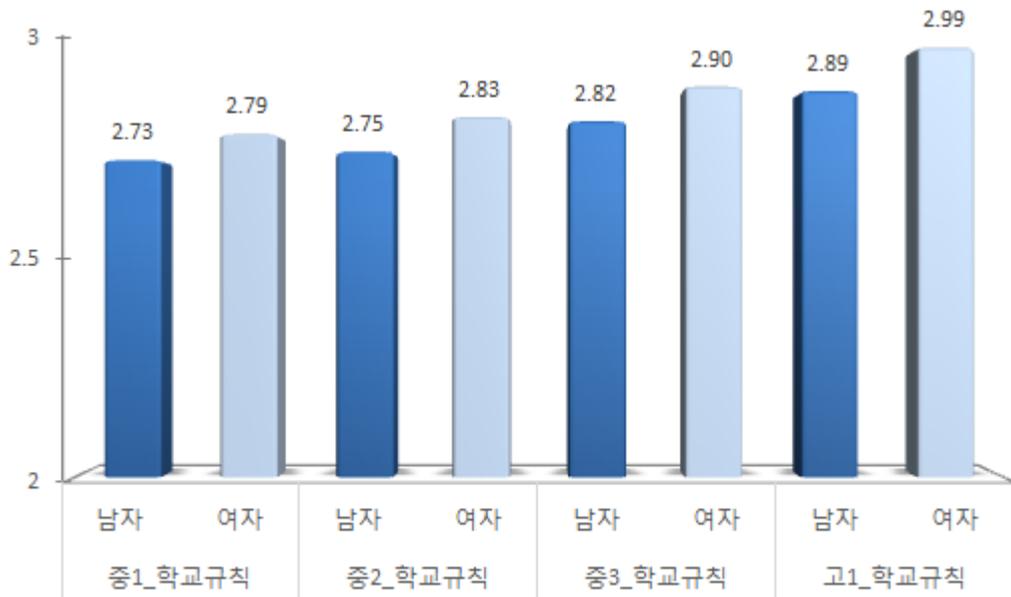
학교규칙에 적응하는 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성별로 살펴보았으며 분산분석 결과는 <표 4-15>에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성별로 살펴본 학교규칙적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7.95, p<.01$; $F=11.35, p<.01$; $F=13.05, p<.001$; $F=19.83, p<.001$).

사후검증결과 4차 조사동안 성별 통계적 차이의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규칙을 더 잘 따르거나 잘 적응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학교생활-학교규칙 변화 추이: 성별

구 분	사례수	학교생활-학교규칙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남	1176	2.73	7.95**	녀>남
	녀	1175	2.79		
중2학년 (2011년)	남	1152	2.75	11.35**	녀>남
	녀	1128	2.83		
중3학년 (2012년)	남	1140	2.82	13.05***	녀>남
	녀	1119	2.90		
고1학년 (2013년)	남	1059	2.89	19.83***	녀>남
	녀	1021	2.99		

주) *** $p<.001$; ** $p<.01$; * $p<.05$



【그림 4-12】 학교생활 중 학교규칙의 평균: 성별 차이

(3) 학교규칙적응의 변화 추이: 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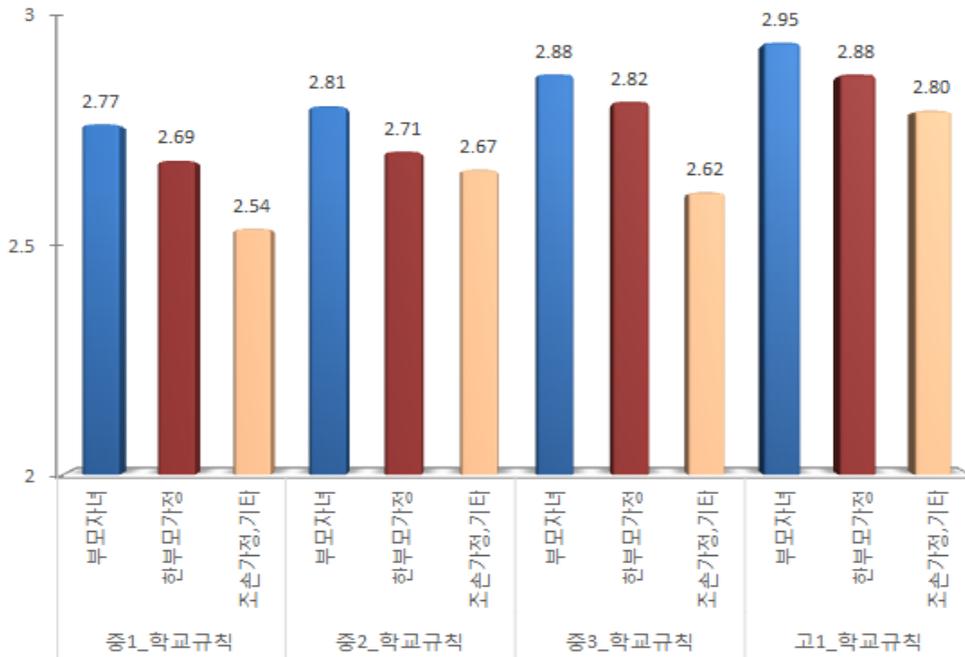
학습규칙에 적응하는 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가족구성별로 살펴보았으며 분산분석 결과는 <표 4-16>에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가족구성별 학교규칙적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7.00, p<.01$; $F=4.73, p<.01$; $F=5.36, p<.01$; $F=3.33, p<.05$).

사후검증결과 4년간 가족구성별 통계적 차이의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의 그룹이 타 그룹(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및 기타)의 청소년에 비해 학교규칙에 더 잘 적응 또는 학교규칙을 더 잘 지키는 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학교생활-학교규칙 변화 추이: 가족구성별

구 분	사례수	학교생활-학교규칙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부모자녀	2028	2.77	.49	7.00**	부모자녀)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및 기타
	한부모가정	284	2.69	.49		
	조손가정 및 기타	37	2.54	.58		
중2학년 (2011년)	부모자녀	1969	2.81	.56	4.73**	부모자녀)한 부모가정
	한부모가정	273	2.71	.57		
	조손가정 및 기타	36	2.67	.57		
중3학년 (2012년)	부모자녀	1947	2.88	.53	5.36**	부모자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및 기타
	한부모가정	273	2.82	.59		
	조손가정 및 기타	37	2.62	.65		
고1학년 (2013년)	부모자녀	1793	2.95	.48	3.33*	부모자녀)한 부모가정
	한부모가정	252	2.88	.57		
	조손가정 및 기타	33	2.80	.49		

주)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4-13】 학교생활 중 학교규칙의 평균: 가족구성별 차이

(4) 학교규칙적응의 변화 추이: 도시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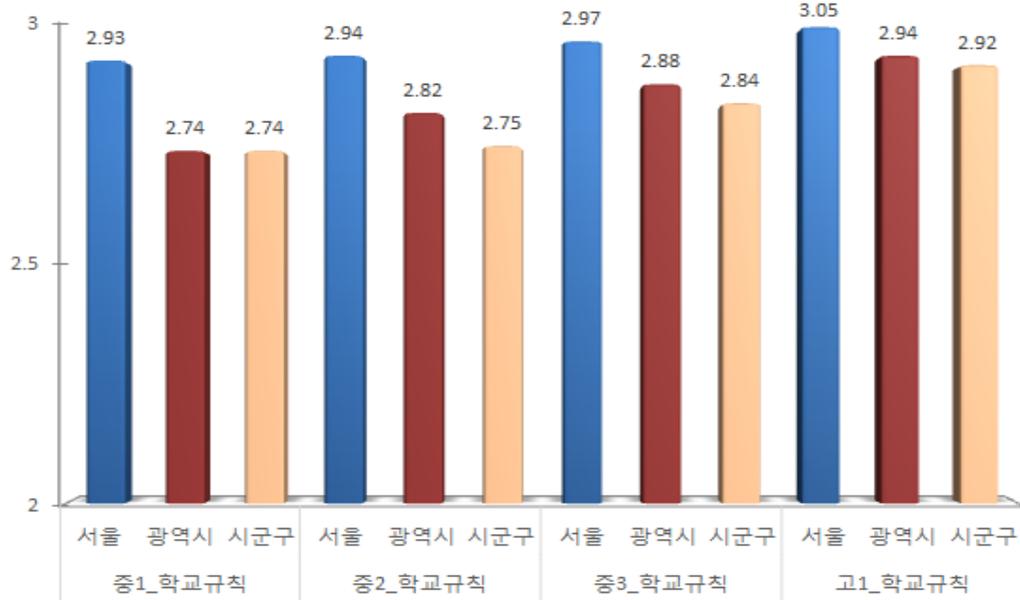
학습규칙에 적응하는 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도시규모별로 살펴보았으며 분산분석 결과는 <표 4-17>에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도시규모별 학교규칙적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6.80, p<.001$; $F=11.56, p<.001$; $F=5.82, p<.01$; $F=4.80, p<.01$).

사후검증결과 4년간 도시규모별 통계적 차이의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그룹이 타 그룹(광역시 또는 시군구 거주)의 청소년에 비해 학교규칙에 더 잘 적응 또는 학교규칙을 더 잘 지키는 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학교생활-학교규칙 변화 추이: 도시규모별

구 분	사례수	학교생활-학교규칙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서울	234	2.93	.48	16.80***	서울)광역시, 시군구
	광역시	761	2.74	.49		
	시군구	1356	2.74	.48		
중2학년 (2011년)	서울	221	2.94	.60	11.56***	서울)광역시) 시군구
	광역시	732	2.82	.52		
	시군구	1327	2.75	.57		
중3학년 (2012년)	서울	211	2.97	.53	5.82**	서울)광역시, 시군구
	광역시	730	2.88	.55		
	시군구	1318	2.84	.53		
고1학년 (2013년)	서울	178	3.05	.48	4.80**	서울)광역시, 시군구
	광역시	672	2.94	.50		
	시군구	1230	2.92	.49		

주)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4-14】 학교생활 중 학교규칙의 평균: 도시규모별 차이

(5) 학교규칙적응의 변화 추이: 소득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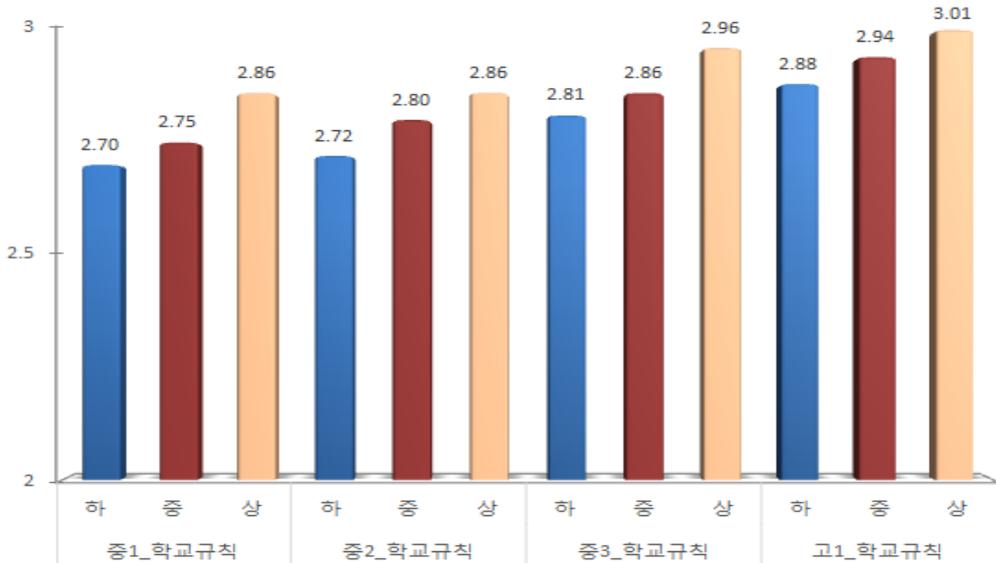
학습규칙에 적응하는 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소득규모별로 살펴보았으며 분산분석 결과는 <표 4-18>에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소득규모별 학교규칙적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2.26, p<.001$; $F=6.52, p<.01$; $F=8.14, p<.001$; $F=6.03, p<.01$).

사후검증결과 4년간 소득규모별 통계적 차이의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상위 소득 그룹에 속한 청소년이 중위 또는 하위 소득 그룹에 속한 청소년에 비해 학교규칙에 더 잘 적응 또는 학교규칙을 더 잘 지키는 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학교생활-학교규칙 변화 추이: 소득규모별

구 분	사례수	학교생활-학교규칙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상	383	2.86	.48	12.26***	상>중>하
	중	1368	2.75	.50		
	하	468	2.70	.48		
중2학년 (2011년)	상	375	2.86	.54	6.52**	상, 중>하
	중	1334	2.80	.57		
	하	447	2.72	.54		
중3학년 (2012년)	상	367	2.96	.54	8.14***	상>중, 하
	중	1322	2.86	.54		
	하	449	2.81	.52		
고1학년 (2013년)	상	334	3.01	.50	6.03**	상>중>하
	중	1212	2.94	.49		
	하	425	2.88	.49		

주)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4-15】 학교생활 중 학교규칙의 평균: 소득규모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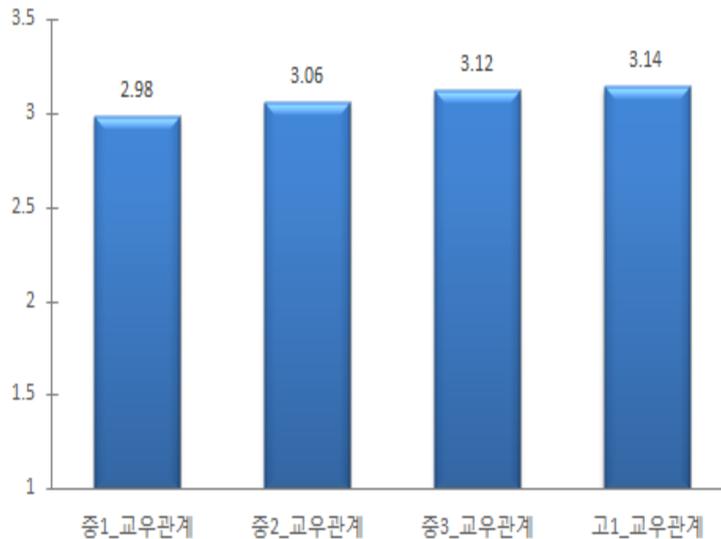
5)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 변화 추이

(1) 교우관계의 변화 추이

중1 패널 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 추이를 <표 4-19>에 제시하였다. 교우관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평균은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우관계와 관련한 문항에 더 긍정적 또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잘 지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학교생활-교우관계 변화 추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2350	2.98	.46
중2학년 (2011년)	2280	3.06	.49
중3학년 (2012년)	2259	3.12	.45
고1학년 (2013년)	2080	3.14	.42



【그림 4-16】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의 평균 변화

(2) 교우관계의 변화 추이: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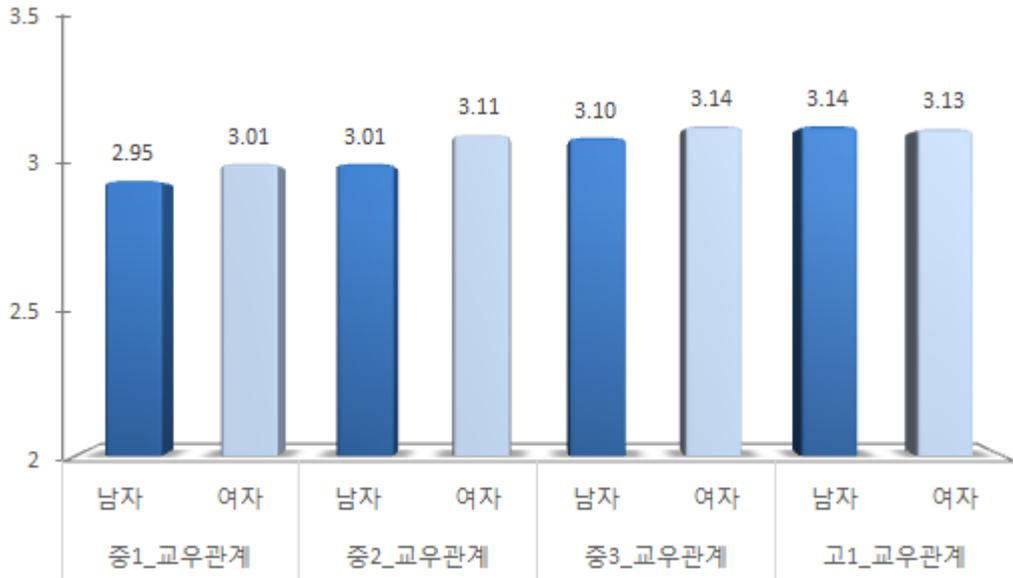
교우관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가족구성별로 살펴보았으며 분산분석 결과는 <표 4-20>에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교우관계적응과 관련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F=7.92, p<.01$; $F=21.13, p<.001$; $F=4.42, p<.05$), 고등학교 1학년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91, p>.05$).

사후검증결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우관계와 관련한 문항에 더 긍정적, 즉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잘 생활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4-20 학교생활-교우관계 변화 추이: 성별

구 분	사례수	학교생활-교우관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남	1175	2.95	7.92**	녀)남
	녀	1175	3.01		
중2학년 (2011년)	남	1152	3.01	21.13***	녀)남
	녀	1128	3.11		
중3학년 (2012년)	남	1140	3.10	4.42*	녀)남
	녀	1119	3.14		
고1학년 (2013년)	남	1059	3.14	.91	-
	녀	1021	3.13		

주) *** $p<.001$; ** $p<.01$; * $p<.05$



【그림 4-17】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의 평균: 성별 차이

(3) 교우관계의 변화 추이: 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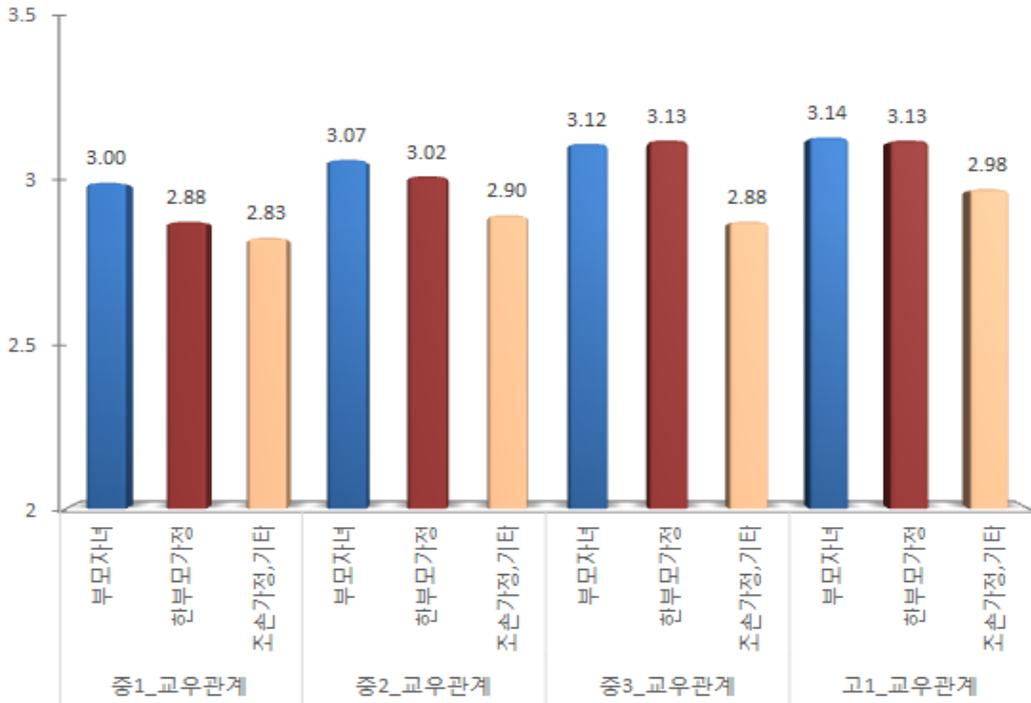
교우관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가족구성별로 살펴보았으며 분산분석 결과는 <표 4-21>에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가족구성별 교우관계 형성과 관련한 요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F=9.40, p<.001$; $F=3.22, p<.05$; $F=5.33, p<.01$), 고등학교 1학년의 가족구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2.16, p>.10$).

사후검증결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전반적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 그룹이 타 그룹 청소년(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가정 및 기타)에 비해 교우관계와 관련한 문항에 더 긍정적, 즉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잘 생활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가족구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21 학교생활-교우관계 변화 추이: 가족구성별

구 분	사례수	학교생활-교우관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부모자녀	2028	3.00	.45	9.40***	부모자녀)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및 기타
	한부모가정	283	2.88	.48		
	조손가정 및 기타	37	2.83	.51		
중2학년 (2011년)	부모자녀	1969	3.07	.48	3.22*	부모자녀)조 손가정 및 기타
	한부모가정	273	3.02	.48		
	조손가정 및 기타	36	2.90	.55		
중3학년 (2012년)	부모자녀	1947	3.12	.45	5.33**	부모자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및 기타
	한부모가정	273	3.13	.49		
	조손가정 및 기타	37	2.88	.44		
고1학년 (2013년)	부모자녀	1793	3.14	.42	2.16	-
	한부모가정	252	3.13	.43		
	조손가정 및 기타	33	2.98	.38		

주)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4-18】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의 평균: 가족구성별 차이

(4) 교우관계의 변화 추이: 도시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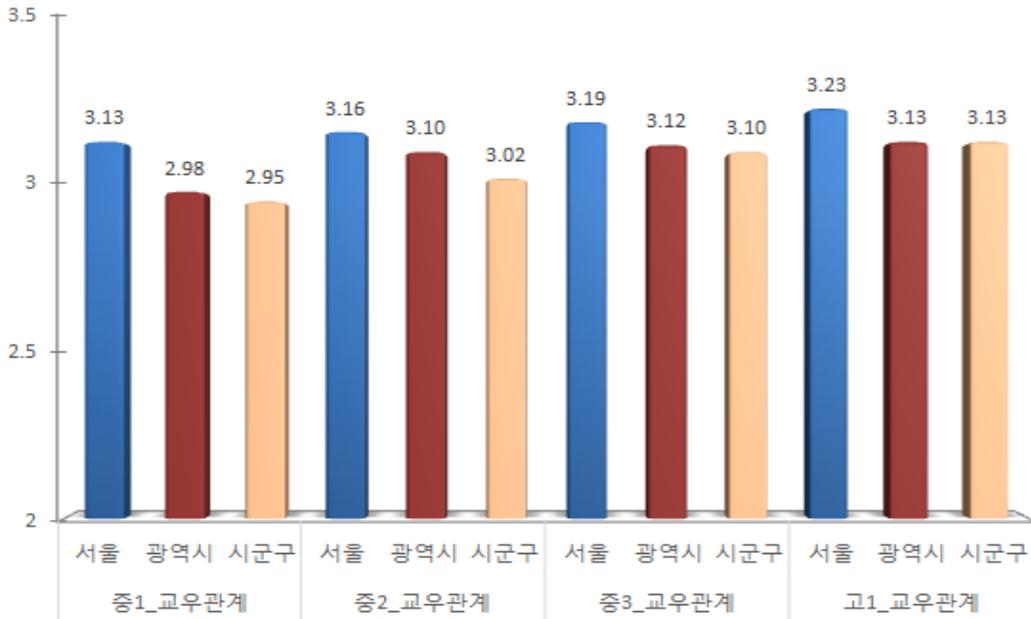
교우관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도시규모별로 살펴보았으며 분산분석 결과는 <표 4-22>에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조사차수에서 도시규모별 교우관계 형성과 관련한 요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4.66, p<.001$; $F=11.84, p<.001$; $F=3.73, p<.05$; $F=4.88, p<.01$).

사후검증결과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그룹이 타 지역 거주 (광역시 또는 시군구) 청소년에 비해 교우관계와 관련한 문항에 더 긍정적, 즉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잘 생활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학교생활-교우관계 변화 추이: 도시규모별

구 분	사례수	학교생활-교우관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서울	234	3.13	.48	14.66***	서울)광역시, 시군구
	광역시	761	2.98	.44		
	시군구	1355	2.95	.46		
중2학년 (2011년)	서울	221	3.16	.50	11.84***	서울, 광역시)시군 구
	광역시	732	3.10	.48		
	시군구	1327	3.02	.48		
중3학년 (2012년)	서울	211	3.19	.50	3.73*	서울)광역시, 시군구
	광역시	730	3.12	.45		
	시군구	1318	3.10	.44		
고1학년 (2013년)	서울	178	3.23	.42	4.88**	서울)광역시, 시군구
	광역시	672	3.13	.44		
	시군구	1230	3.13	.41		

주)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4-19】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의 평균: 도시규모별 차이

(5) 교우관계의 변화 추이: 소득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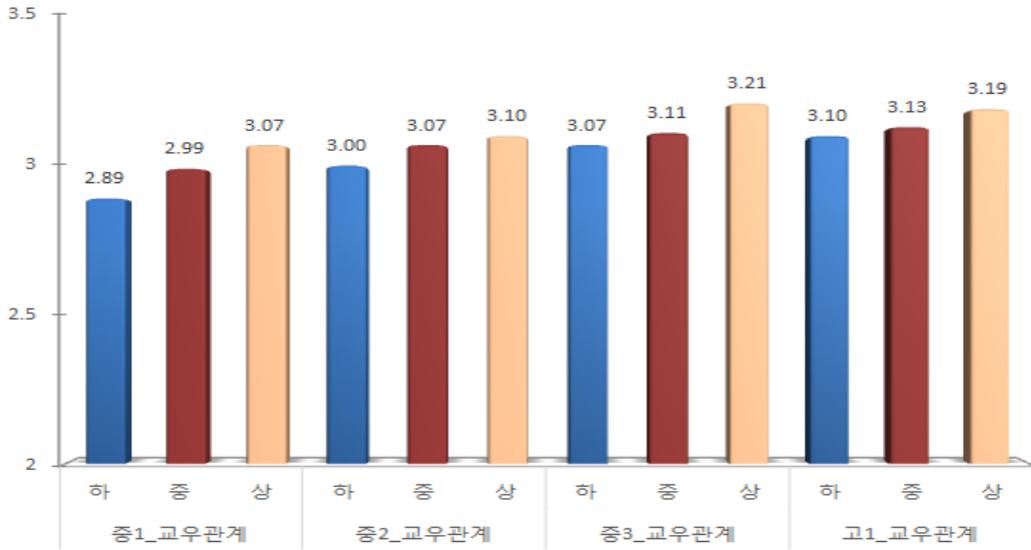
교우관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소득규모별로 살펴보았으며 분산분석 결과는 <표 4-23>에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조사차수에서 소득규모별 교우관계 형성과 관련한 요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6.09, p<.001$; $F=4.50, p<.05$; $F=11.04, p<.001$; $F=5.10, p<.01$).

사후검증결과 전반적으로 상위 소득그룹에 속한 청소년이 타 그룹(중위 또는 하위 소득그룹)에 속한 청소년에 비해 교우관계와 관련한 문항에 더 긍정적, 즉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잘 생활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학교생활-교우관계 변화 추이: 소득규모별

구 분	사례수	학교생활-교우관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상	383	3.07	.46	16.09***	상>중>하
	중	1368	2.99	.46		
	하	467	2.89	.44		
중2학년 (2011년)	상	375	3.10	.46	4.50*	상, 중>하
	중	1334	3.07	.49		
	하	447	3.00	.45		
중3학년 (2012년)	상	367	3.21	.45	11.04***	상>중, 하
	중	1322	3.11	.44		
	하	449	3.07	.46		
고1학년 (2013년)	상	334	3.19	.40	5.10**	상>중, 하
	중	1212	3.13	.42		
	하	425	3.10	.44		

주)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4-20】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의 평균: 소득규모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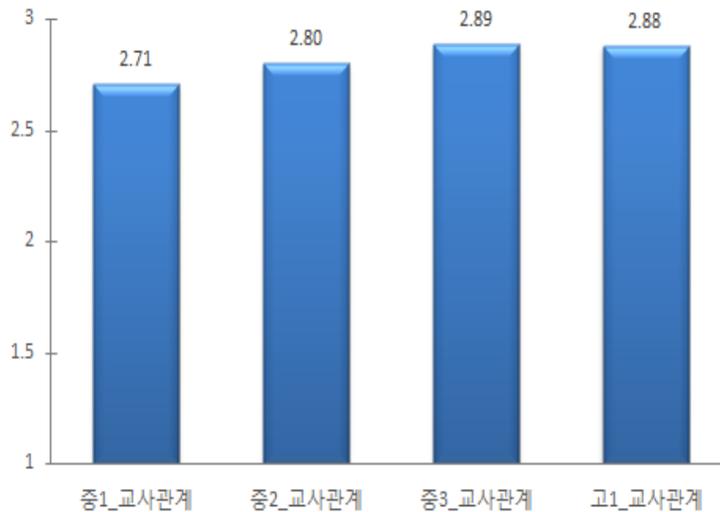
6) 학교생활 중 교사관계 변화 추이

(1) 교사관계의 변화 추이

중1 패널 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 추이를 <표 4-24>에 제시하였다. 교사관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평균은 중학교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으나, 고1 청소년의 평균은 중3 청소년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4-24 학교생활-교사관계 변화 추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2350	2.71	.67
중2학년 (2011년)	2280	2.80	.66
중3학년 (2012년)	2259	2.89	.63
고1학년 (2013년)	2080	2.88	.58



【그림 4-2】 학교생활 중 교사관계의 평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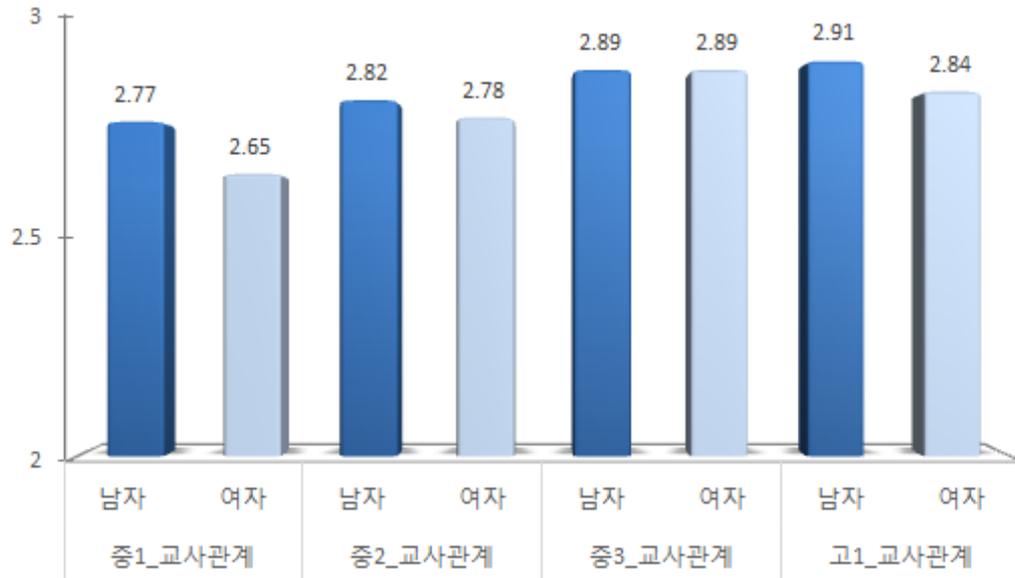
(2) 교사관계 변화 추이: 성별

교사관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성별로 살펴보았으며 분산분석 결과는 <표 4-25>에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교사관계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F=21.08, p<.001$; $F=7.59, p<.01$),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2.30, p>.10$; $F=.00, p>.10$).

표 4-25 학교생활-교사관계 변화 추이: 성별

구 분	사례수	학교생활-교사관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남	1175	2.77	21.08***	남>녀
	녀	1175	2.65		
중2학년 (2011년)	남	1152	2.82	2.30	-
	녀	1128	2.78		
중3학년 (2012년)	남	1140	2.89	.00	-
	녀	1119	2.89		
고1학년 (2013년)	남	1059	2.91	7.59**	남>녀
	녀	1021	2.84		

주) *** $p<.001$; ** $p<.01$; * $p<.05$



【그림 4-22】 학교생활 중 교사관계의 평균: 성별 차이

(3) 교사관계의 변화 추이: 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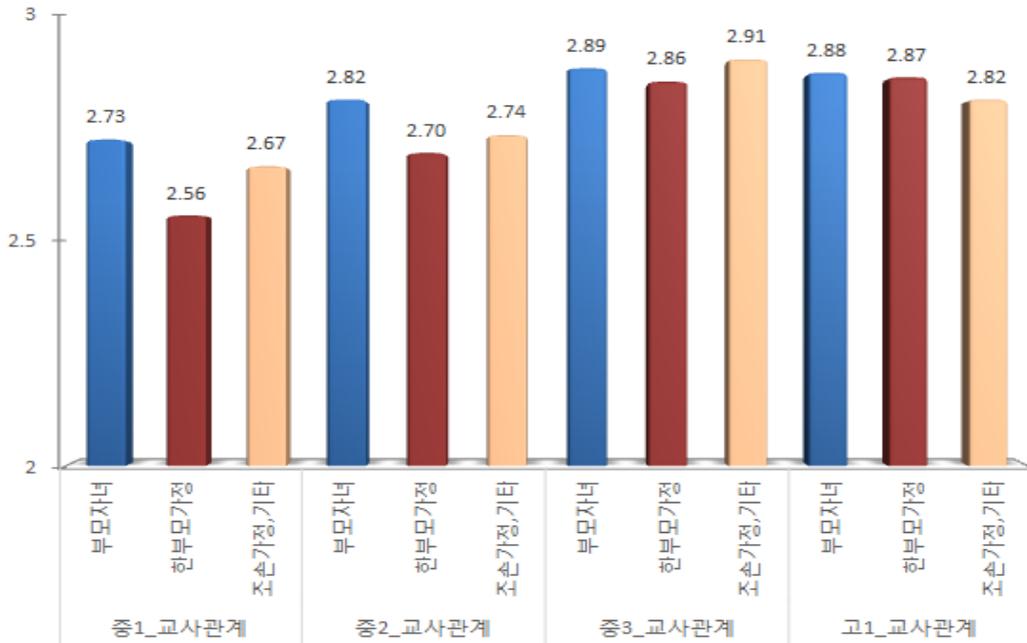
교사관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가족구성별로 살펴보았으며 분산분석 결과는 <표 4-26>에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까지의 교사관계적응과 관련한 가족구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F=8.63, p<.001$; $F=3.72, p<.05$),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33, p>.10$; $F=.19, p>.10$).

사후검증결과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청소년 그룹이 한부모가정 그룹의 청소년에 비해 교사관계와 관련한 문항에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학교생활-교사관계 변화 추이: 가족구성별

구 분	사례수	학교생활-교사관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부모자녀	2028	2.73	.67	8.63***	부모자녀)한 부모가정
	한부모가정	283	2.56	.66		
	조손가정 및 기타	37	2.67	.55		
중2학년 (2011년)	부모자녀	1969	2.82	.65	3.72*	부모자녀)한 부모가정
	한부모가정	273	2.70	.70		
	조손가정 및 기타	36	2.74	.76		
중3학년 (2012년)	부모자녀	1947	2.89	.63	.33	-
	한부모가정	273	2.86	.61		
	조손가정 및 기타	37	2.91	.66		
고1학년 (2013년)	부모자녀	1793	2.88	.58	.19	-
	한부모가정	252	2.87	.60		
	조손가정 및 기타	33	2.82	.49		

주)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4-23】 학교생활 중 교사관계의 평균: 가족구성별 차이

(4) 교사관계의 변화 추이: 도시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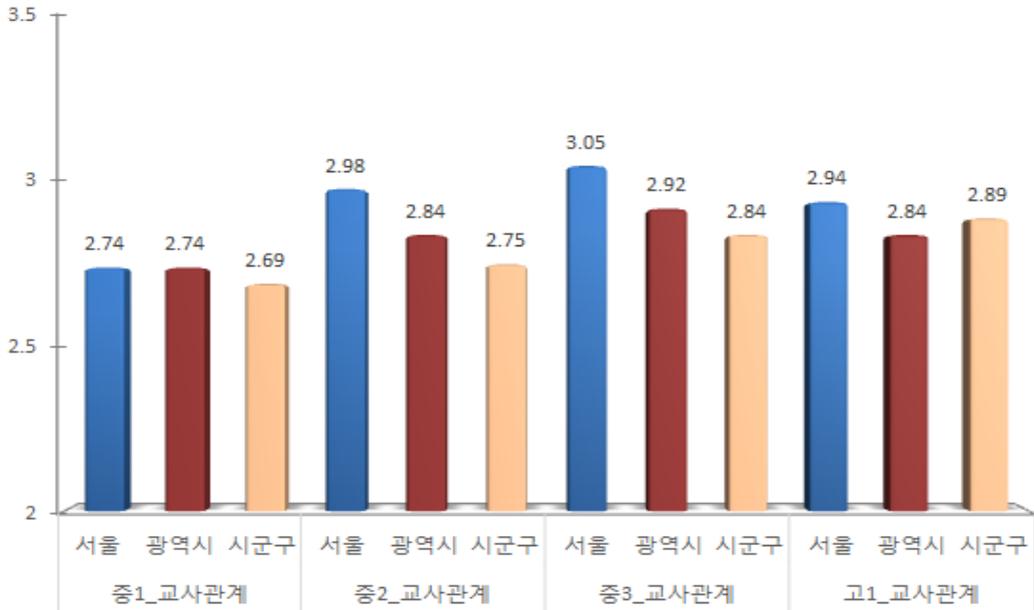
교사관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도시규모별로 살펴보았으며 분산분석 결과는 <표 4-27>에 제시하였다.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교사관계적응과 관련한 도시규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F=12.46, p<.001$; $F=11.26, p<.001$),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59, p>.10$; $F=2.73, p>.10$).

사후검증결과 서울시 거주 청소년 그룹이 타 지역(광역시 또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그룹에 비해 교사관계와 관련한 문항에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학교생활-교사관계 변화 추이: 도시규모별

구 분	사례수	학교생활-교사관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서울	234	2.74	.70	1.59	-
	광역시	761	2.74	.64		
	시군구	1355	2.69	.68		
중2학년 (2011년)	서울	221	2.98	.61	12.46***	서울)광역시) 시군구
	광역시	732	2.84	.64		
	시군구	1327	2.75	.67		
중3학년 (2012년)	서울	211	3.05	.61	11.26***	서울)광역시) 시군구
	광역시	730	2.92	.62		
	시군구	1318	2.84	.63		
고1학년 (2013년)	서울	178	2.94	.54	2.73	-
	광역시	672	2.84	.60		
	시군구	1230	2.89	.57		

주)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4-24】 학교생활 중 교사관계의 평균: 도시규모별 차이

(5) 교사관계의 변화 추이: 소득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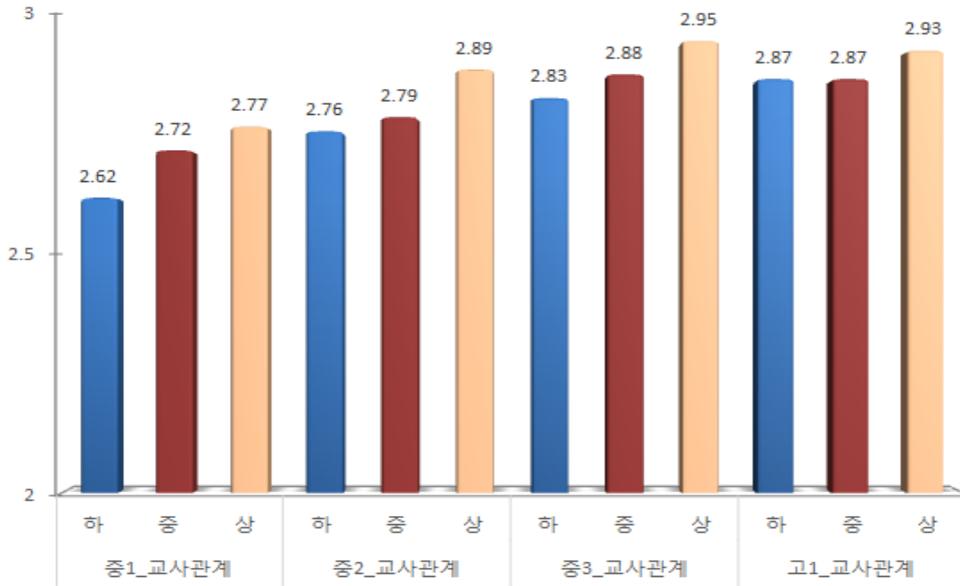
교사관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소득규모별로 살펴보았으며 분산분석 결과는 <표 4-28>에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교사관계적응과 관련한 소득규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F=5.47, p<.01$; $F=4.07, p<.05$; $F=3.58, p<.05$), 고등학교 1학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33, p>.10$).

사후검증결과 상위 소득그룹 청소년이 타 그룹(중위 또는 하위 소득그룹)에 비해 청소년 그룹에 비해 교사관계와 관련한 문항에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학교생활-교사관계 변화 추이: 소득규모별

구 분	사례수	학교생활-교사관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중1학년 (2010년)	상	383	2.77	.66	5.47**	상, 중)하
	중	1368	2.72	.66		
	하	467	2.62	.68		
중2학년 (2011년)	상	375	2.89	.64	4.07*	상)중, 하
	중	1334	2.79	.66		
	하	447	2.76	.67		
중3학년 (2012년)	상	367	2.95	.64	3.58*	상)하
	중	1322	2.88	.63		
	하	449	2.83	.60		
고1학년 (2013년)	상	334	2.93	.55	1.33	-
	중	1212	2.87	.58		
	하	425	2.87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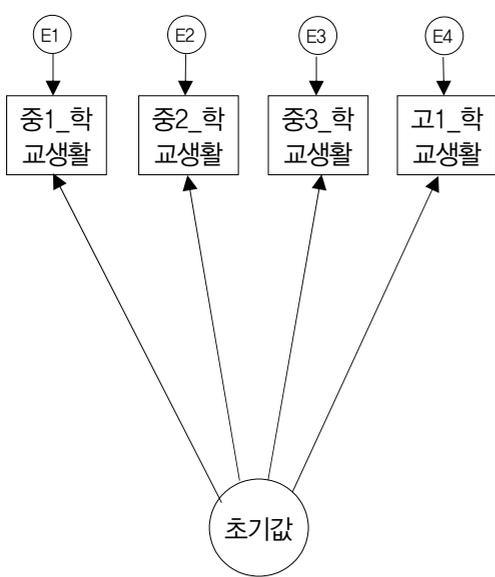
주)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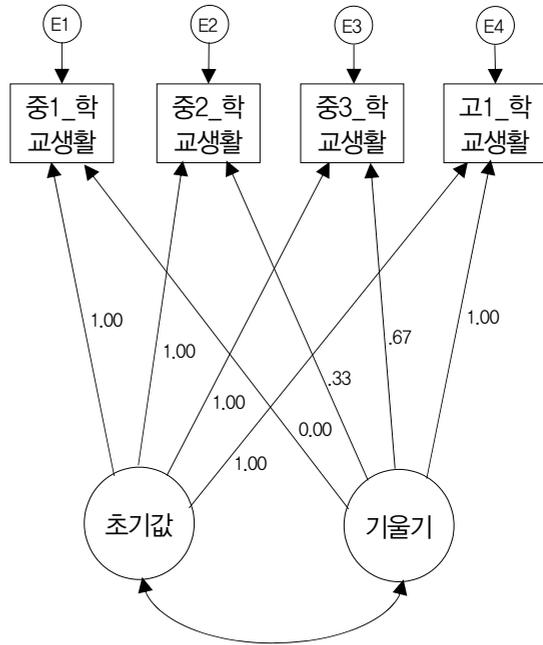
【그림 4-25】 학교생활 중 교사관계의 평균: 소득규모별 차이

3.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

2010년~2013년(중1~고1) 4개 시점에서 측정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각 요인별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무변화모형은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이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초기값을 1로 고정하여 검증한 모형이다. 선형모형은 학교생활적응이 일정한 수준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그 변화율을 0.00, 0.33, 0.67, 1.00로 고정하여 검증한 모형이다.



【그림 4-26】 무변화모형



【그림 4-27】 선형변화모형

1) 학교생활적응-학습활동의 변화궤적

학교생활적응 중 4개 시점의 학습활동 변화를 살펴본 잠재성장모형의 결과는 <표 4-29>와 같다. 모형적합도를 보았을 때 학습활동의 잠재성장모형은 선형모형이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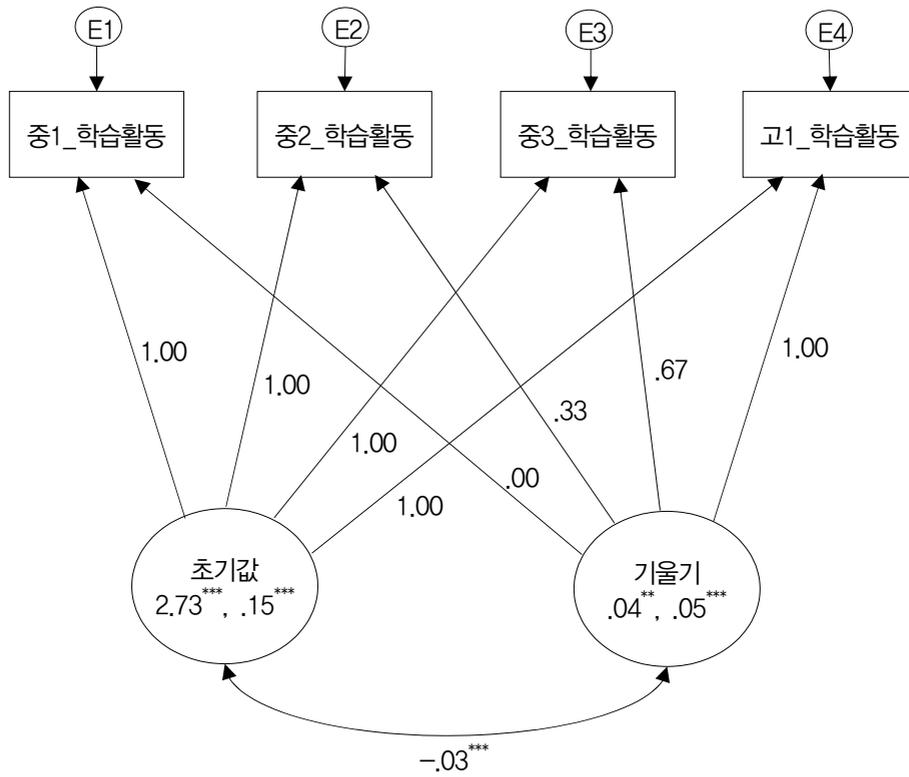
표 4-29 학교생활-학습활동의 무변화모형, 선형모형의 비교

	χ^2	df	NFI	CFI	RMSEA
무변화모형	120.2	11	.952	.957	.065
선형모형	74.7	8	.970	.973	.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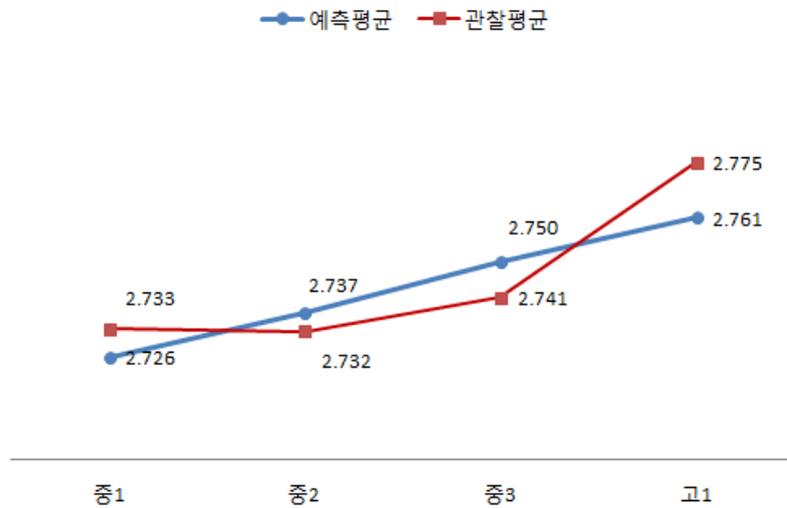
잠재성장모형 중 선형모형에 기초한 학습활동의 초기값 및 변화율은 [그림 4-28]과 같다. 학습활동 초기치 평균은 2.73($p < .001$), 분산은 .15($p < .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학습활동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볼 때 중학교 1학년 때의 학습활동 전체 평균은 2.73이며, 초기치 수준에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학습활동 변화율 평균은 .04($p < .01$)로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학습활동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활동적응 변화율의 분산이 .05($p < .001$)에 유의하였다. 이는 4년 동안 학습활동적응의 변화속도에 개인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활동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공분산 추정치는 $-.03$ ($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연도별로 측정된 학습활동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을 비교한 그래프는 [그림 4-29]와 같다.



【그림 4-28】 학습활동의 잠재성장모형



【그림 4-29】 학습활동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2) 학교생활적응-학교규칙의 변화궤적

학교생활적응 중 4개 시점의 학교규칙 변화를 살펴본 잠재성장모형의 결과는 <표 4-30>과 같다. 모형적합도를 보았을 때 학교규칙의 잠재성장모형은 선형모형이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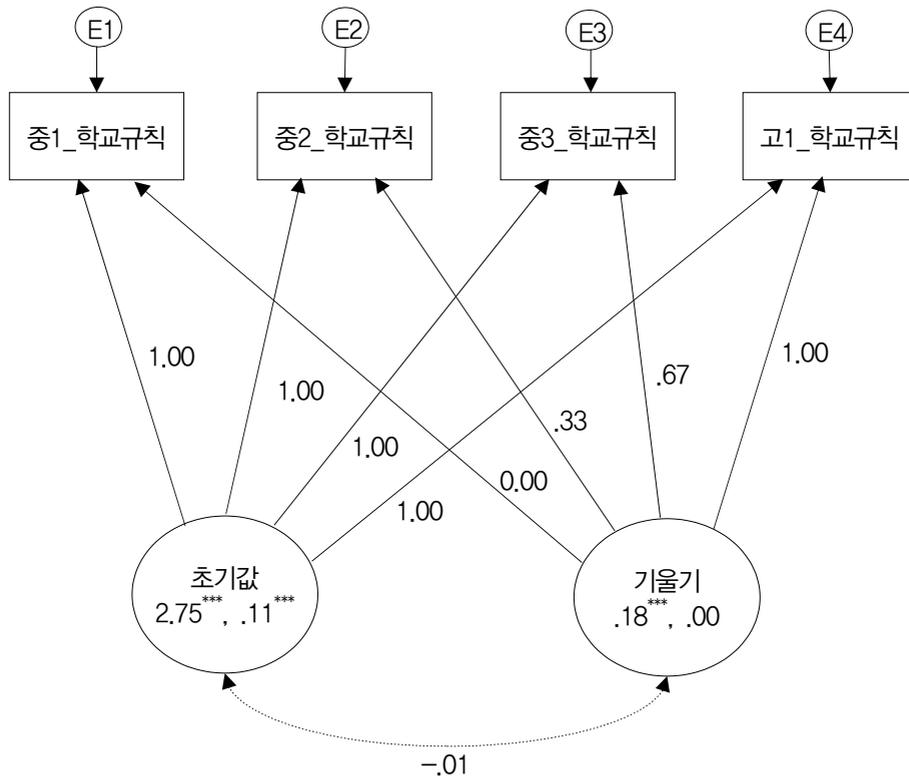
표 4-30 학교생활-학교규칙의 무변화모형, 선형모형의 비교

	χ^2	df	NFI	CFI	RMSEA
무변화모형	325.1	11	.779	.784	.115
선형모형	108.6	8	.932	.936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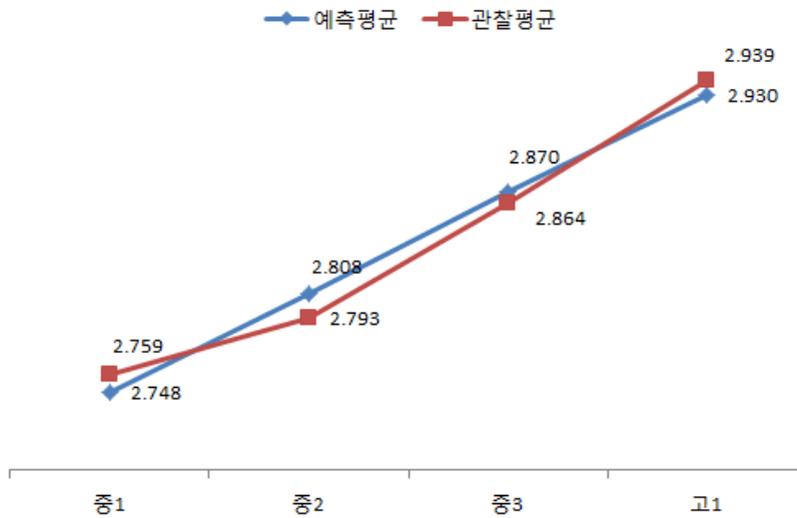
잠재성장모형 중 선형모형에 기초한 학교규칙의 초기값 및 변화율은 [그림 4-30]과 같다. 학습활동 초기치 평균은 2.75($p < .001$), 분산은 .11($p < .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학교규칙적응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볼 때 중학교 1학년 때의 학교규칙 전체 평균은 2.75이며, 초기치 수준에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규칙적응의 변화율 평균은 .18($p < .001$)로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학습활동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활동적응 변화율의 분산이 .00($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4년 동안 학습활동적응의 변화속도에는 개인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규칙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공분산 추정치는 -.01($p > .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각 연도별로 측정된 학교규칙적응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을 비교한 그래프는 [그림 4-31]과 같다.



【그림 4-30】 학교규칙의 잠재성장모형



【그림 4-31】 학교규칙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3) 학교생활적응-교우관계의 변화궤적

학교생활적응 중 4개 시점의 교우관계 변화를 살펴본 잠재성장모형의 결과는 <표 4-31>과 같다. 모형적합도를 보았을 때 교우관계의 잠재성장모형은 선형모형이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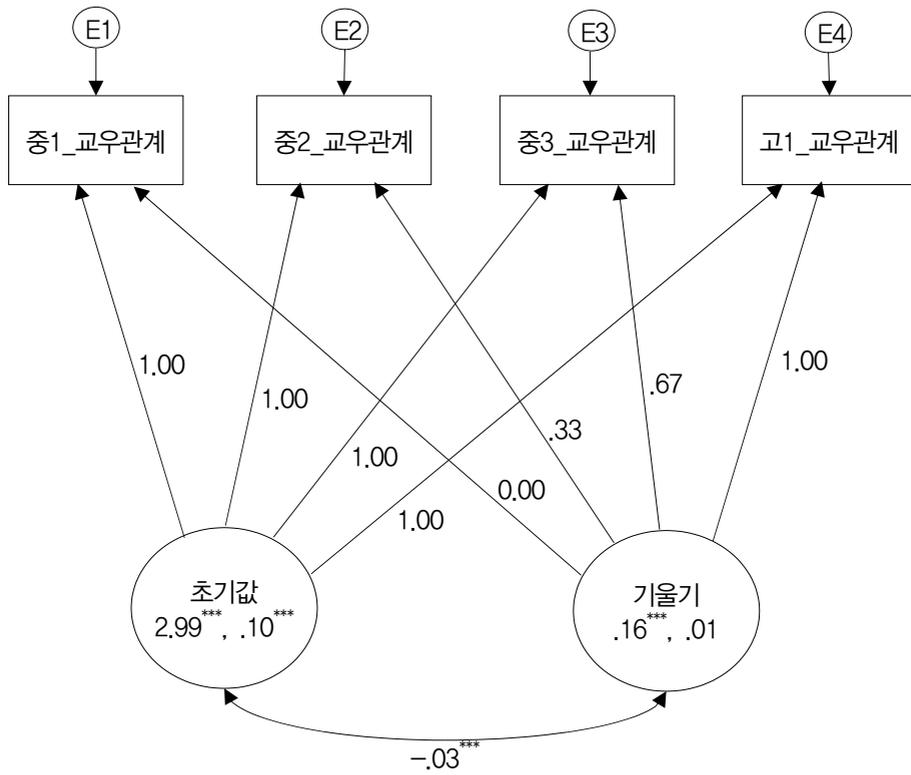
표 4-31 학교생활-교우관계의 무변화모형, 선형모형의 비교

	χ^2	df	NFI	CFI	RMSEA
무변화모형	326.7	11	.779	.785	.111
선형모형	58.2	8	.961	.966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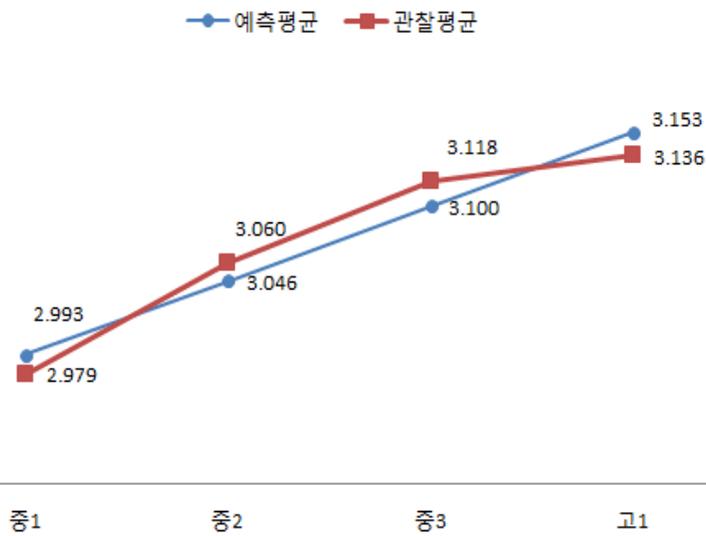
잠재성장모형 중 선형모형에 기초한 교우관계의 초기값 및 변화율은 [그림 4-32]와 같다. 교우관계 초기치 평균은 2.99($p < .001$), 분산은 .10($p < .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교우관계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볼 때 중학교 1학년 때의 교우관계적응의 전체 평균은 2.99이며, 초기치 수준에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교우관계 변화율 평균은 .16($p < .001$)으로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교우관계적응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적응 변화율의 분산이 .01($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4년 동안 교우관계적응의 변화속도에 개인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우관계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공분산 추정치는 $-.03$ ($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연도별로 측정된 교우관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을 비교한 그래프는 [그림 4-33]과 같다.



【그림 4-32】 교우관계의 잠재성장모형



【그림 4-33】 교우관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4)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의 변화궤적

학교생활적응 중 4개 시점의 교사관계 변화를 살펴본 잠재성장모형의 결과는 <표 4-32>와 같다. 모형적합도를 보았을 때 교사관계 잠재성장모형은 선형모형이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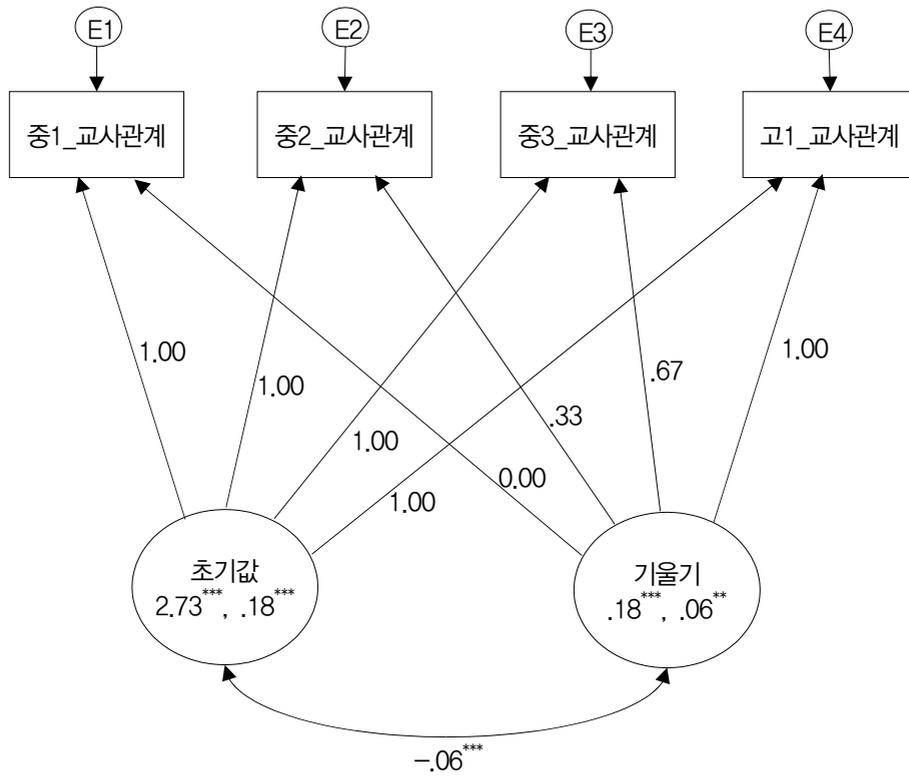
표 4-32 학교생활-교사관계의 무변화모형, 선형모형의 비교

	χ^2	df	NFI	CFI	RMSEA
무변화모형	258.3	11	.746	.754	.098
선형모형	77.8	8	.923	.931	.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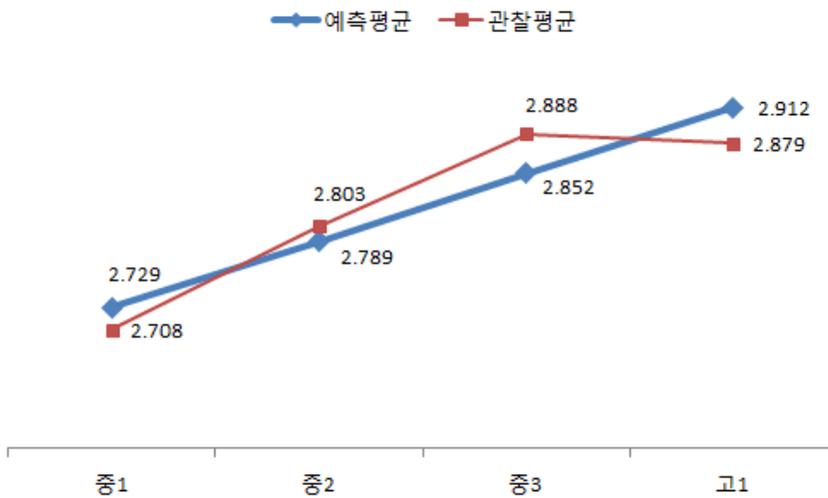
잠재성장모형 중 선형모형에 기초한 교사관계의 초기값 및 변화율은 [그림 4-34]와 같다. 교사관계 초기치 평균은 2.73($p < .001$), 분산은 .18($p < .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교사관계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볼 때 중학교 1학년 때의 교사관계적응의 전체 평균은 2.73이며, 초기치 수준에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교사관계 변화율 평균은 .18($p < .001$)로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교사관계적응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적응 변화율의 분산이 .06($p < .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4년 동안 교사관계적응의 변화속도에 개인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사관계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공분산 추정치는 -.06($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연도별로 측정된 교사관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을 비교한 그래프는 [그림 4-3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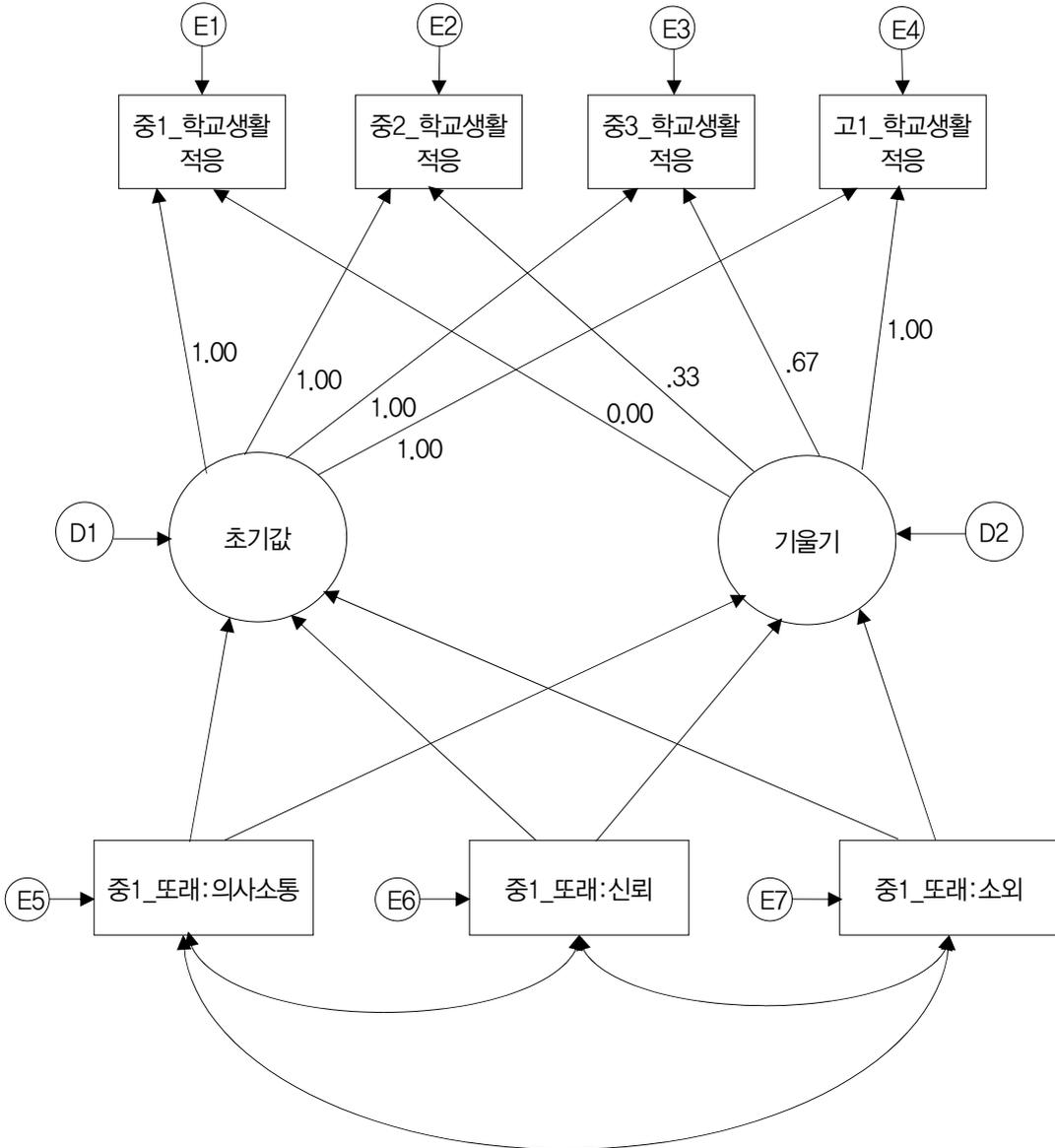
【그림 4-34】 교사관계의 잠재성장모형



【그림 4-35】 교사관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4.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1차년도(중1학년)의 또래관계 형성이 제1차~제4차(중1~고1)년도에 걸친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구조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기본모형은 [그림 4-36]과 같으며, 학교생활적응의 세부요인별 구조모형 적합도와 경로계수는 다음에 제시되었다.



【그림 4-36】 또래관계형성이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

1) 또래관계가 학습활동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또래관계 형성이 1~4차년도의 학습활동적응에 미친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 4-33>에 제시되었으며, 각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구조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또래관계가 학습활동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구조모형 적합도

	χ^2	df	NFI	CFI	RMSEA
구조모형	99.4	15	.980	.983	.049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기에 모형을 통해 추정된 경로계수를 통해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4-34>에 제시되었다.

표 4-34 또래관계가 학습활동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B	S.E.	베타
또래관계:소통 → 학습활동 초기값	.19***	.02	.31
또래관계:소통 → 학습활동 변화율	-.07**	.03	-.26
또래관계:신뢰 → 학습활동 초기값	.05*	.02	.08
또래관계:신뢰 → 학습활동 변화율	.00	.03	.01
또래관계:소외 → 학습활동 초기값	-.04	.02	-.07
또래관계:소외 → 학습활동 변화율	.01	.02	.02

또래관계 중 의사소통과 학습활동 초기값과 변화율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의 초기수준이 높고, 시간경과에 따라 학습활동의 감소율이 더 작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또래관계 중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학습활동의 감소가 다른 학생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또래관계

중 신뢰의 경우는 초기값과의 관계는 유의하였지만 변화율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의 초기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2) 또래관계가 학교규칙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1차년도에 또래관계 형성이 1~4차년도의 학교규칙적응에 미친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 4-35>에 제시되었으며, 각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구조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또래관계가 학교규칙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구조모형 적합도

	χ^2	df	NFI	CFI	RMSEA
구조모형	116.9	15	.970	.974	.054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기에 모형을 통해 추정된 경로계수를 통해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4-36>에 제시되었다.

표 4-36 또래관계가 학교규칙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B	S.E.	베타
또래관계:소통 → 학교규칙 초기값	.14***	.02	.25
또래관계:소통 → 학교규칙 변화율	-.05	.03	-
또래관계:신뢰 → 학교규칙 초기값	.02	.02	.04
또래관계:신뢰 → 학교규칙 변화율	-.02	.03	-
또래관계:소외 → 학교규칙 초기값	.03	.02	.05
또래관계:소외 → 학교규칙 변화율	-.01	.02	-

또래관계 중 의사소통 요인과 학교규칙 초기값과의 관계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규칙에 적응하는 초기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3) 또래관계가 교우관계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1차년도와 또래관계 형성이 1~4차년도의 교우관계적응에 미친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 4-37>에 제시되었으며, 각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구조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또래관계가 교우관계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구조모형 적합도

	χ^2	df	NFI	CFI	RMSEA
구조모형	152.9	15	.966	.970	.063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기에 모형을 통해 추정된 경로계수를 통해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4-38>에 제시되었다.

표 4-38 또래관계가 교우관계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B	S.E.	베타
또래관계:소통 → 교우관계 초기값	.23***	.02	.42
또래관계:소통 → 교우관계 변화율	-.16***	.03	-.83
또래관계:신뢰 → 교우관계 초기값	.15***	.02	.30
또래관계:신뢰 → 교우관계 변화율	-.04	.03	-.21
또래관계:소외 → 교우관계 초기값	-.04**	.01	-.08
또래관계:소외 → 교우관계 변화율	.01	.02	.06

또래관계 중 의사소통과 교우관계의 초기값, 변화율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교우관계 초기수준이 높으며,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교우관계 부적응은 더디게 저하 된다는 의미이다.

신뢰와 교우관계의 초기값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변화율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또래와의 신뢰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교우관계 초기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소외와 교우관계의 초기값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소외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이들의 교우관계 초기값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4) 또래관계가 교사관계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1차년도와 또래관계 형성이 1~4차년도의 교사관계적응에 미친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 4-39>에 제시되었으며, 각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구조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또래관계가 교사관계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구조모형 적합도

	χ^2	df	NFI	CFI	RMSEA
구조모형	109.5	15	.968	.972	.052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기에 모형을 통해 추정된 경로계수를 통해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4-40>에 제시되었다.

표 4-40 또래관계가 교사관계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B	S.E.	베타
또래관계:소통 → 교사관계 초기값	.19***	.03	.31
또래관계:소통 → 교사관계 변화율	-.10**	.04	-
또래관계:신뢰 → 교사관계 초기값	.07*	.03	.12
또래관계:신뢰 → 교사관계 변화율	.02	.04	-
또래관계:소외 → 교사관계 초기값	.02	.02	.03
또래관계:소외 → 교사관계 변화율	-.02	.03	-

또래관계 중 의사소통과 교사관계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관계적응의 초기수준이 높고, 시간경과에 따라 교사관계적응에 대한 감소율이 더 적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또래관계 중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교사관계적응이 다른 학생에 비해 더디게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또래관계 중 신뢰의 경우는 초기값과의 관계는 유의하였지만 변화율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관계적응 초기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 5 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 분석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제 5 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 분석결과 요약

1) 연구대상의 특성

1차년도(2010)를 기준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의 비율은 51.7%, 여학생의 비율은 48.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4차년도 (2013)년에도 남, 여학생의 비율은 각각 51.0%와 49.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도시규모는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절반이상 (56%~59%)이었고, 서울지역 거주 청소년의 비율은 1차년에 비해 4차년에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 가구소득 수준별 집단은 대략 중위 소득집단 60%, 상위 20%, 하위 20%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 살펴보면, 부모자녀가정 즉 부모와 거주하는 중학생이 약 86% 정도였고,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 가정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약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 이상이 대부분으로 약 95% 정도가 고졸 또는 이상의 높은 학력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사례수는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기타 보호자 (조부모 등)의 경우 중졸이하의 학력 정도가 8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또래관계 형성의 특성

또래관계 형성과 관련한 조사는 중학교 1학년(2010)년에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래관계 또는 또래애착 형성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이 활용되었으며, 의사소통, 신뢰형성, 소외감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살펴보았다.

의사소통 2.90점, 신뢰형성 3.03점, 소외감 2.02점으로 대체적으로 의사소통과 신뢰형성에 있어 그런편이다 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많았으며, 소외감과 관련해서는 평균 수준이 다른

요인에 비해 낮았다.

성별차이 검증에서는 의사소통과 신뢰형성에서 모두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는 것에 대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과 신뢰형성 모두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평균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한부모가정 청소년에 비해 또래와의 의사소통에 더 적극적이고 신뢰형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적응의 특성

학교생활적응은 1차~4차(2010년~2013년, 중1~고1) 조사기간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적응의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살펴보았다.

학습활동적응과 관련하여 중1~고1 청소년의 평균은 각각 2.73, 2.73, 2.74, 2.78이었다. 평균점수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학습활동적응에서 중3, 고1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수업시간에 재미있어하고, 숙제를 잘 해가고, 공부 시간에 딴 짓을 덜 하는 등의 학습활동적응에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적응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평균은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중1~고1, 각각 2.76, 2.79, 2.86, 2.94점).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규칙과 관련한 문항에 더 긍정적 또는 학교규칙을 잘 따르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우관계와 관련한 문항에 더 긍정적 또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잘 지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1~고1, 각각 2.98, 3.06, 3.12, 3.14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우관계와 관련한 문항에 더 긍정적, 즉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잘 생활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교사관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평균은 중학교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으나, 고1 청소년의 평균은 중3 청소년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중1~고1, 각각 2.71, 2.80, 2.89, 2.88점).

4)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

중1 패널의 학교생활적응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과 관련한 4개 영역 모두에서 초기치와 변화율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볼 때 중학교 1학년 때의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 수준에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에 이르는 4년 동안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개 영역에서 변화율의 분산 값의 통계적 유의성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첫째, 학습활동적응의 기울기와 분산 통계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학습활동의 변화율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변화 속도에서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둘째, 학교규칙적응의 기울기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규칙적응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개인 간 차이는 없는 것임을 나타낸다. 셋째, 교우관계적응에서 청소년의 적응 수준은 점차 상승하는 수준을 보였으나 개인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관계적응에서 청소년의 적응 수준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개인 간 변화율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5)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또래관계 중 의사소통과 학습활동 초기값과 변화율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의 초기수준이 높고, 시간경과에 따른 학습활동의 감소율의 정도는 더디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관계 중 의사소통과 교우관계의 초기값, 변화율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교우관계 초기수준이 높으며,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교우관계 부적응은 더디게 저하된다는 의미이다.

신뢰와 교우관계의 초기값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변화율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또래와의 신뢰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교우관계 초기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관계 중 의사소통과 교사관계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 중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교사관계적응이 다른 학생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관계 중 신뢰의 경우는 초기값과의 관계는 유의하였지만 변화율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관계적응 초기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책제언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또래관계 형성 및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한다.

학교생활적응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은 학교생활부적응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이혜경, 김현주, 2007). 즉,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돕는 정책은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돕고 부적응을 경험 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예방하는 정책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요소들은 크게 개인역량 강화, 가족관계 증진, 대인관계 증진, 진로교육 확대 등으로 나누어 정책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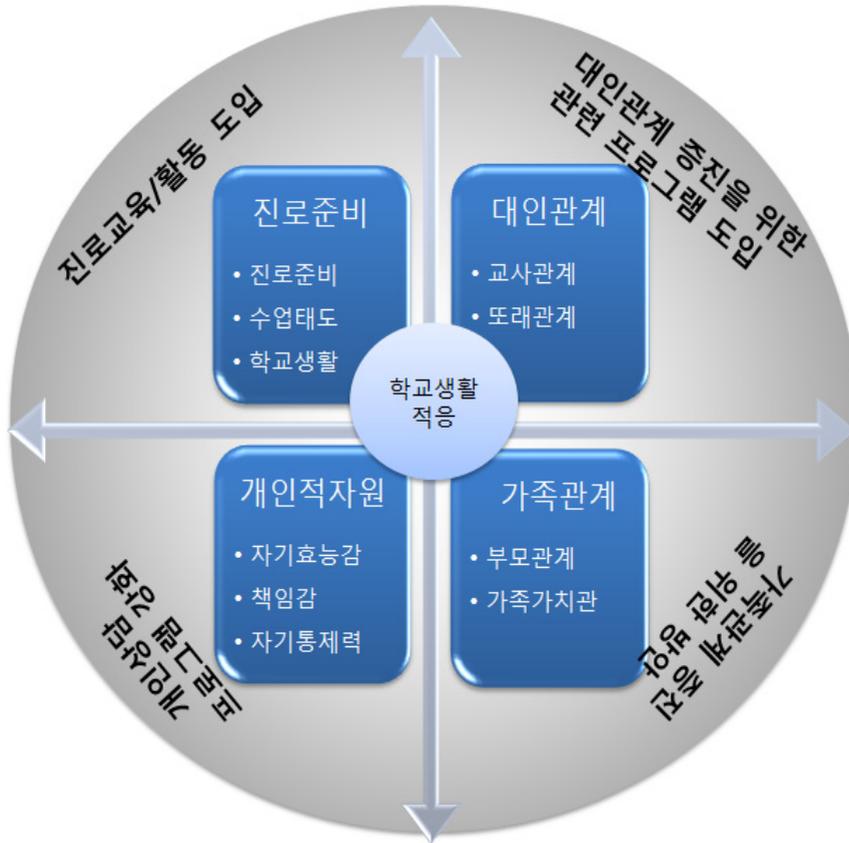
1) 청소년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신뢰형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교우관계나 교사관계와 같은 학교생활적응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신뢰형성의 초기 수준은 시간이 지나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초기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는 청소년일수록 나중까지 교우관계나 교사와의 관계도 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는 청소년은 또한 학습활동에도 적극적이고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이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시사점을 갖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주요 대인관계 대상은 또래일 것이다. 따라서 원만한 또래 혹은 친구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대인관계 대상을 단순한 친구관계로 제한하지 말고 교사, 부모, 기타 타인으로 확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과과정 중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특정 과목으로 분류하여 교육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인관계와 관련한 내용은 세미나와 같은 특별 교육과 캠프 및 특활 활동과 같은 과외 활동 프로그램 편성과 청소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돕는 프로그램 및 대인관계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5-1】 학교적응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변인과 개선 프로그램에 관한 모형²⁾

2) 본 모형은 이해경, 김현주(2007) 논문의 39페이지, ‘〈그림 3〉 학교적응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모형’을 수정하였다.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은 여러 각도로 다양한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인관계 증진은 결국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항목일 것이다. 따라서 개인 상담이나 자존감 향상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과 연계한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최근 교육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최근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실제 관련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친구와의 관계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중요 항목, 덕목, 예절 등을 포함하여 교육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특히 친구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청소년 취약집단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부적응을 겪는 청소년의 원인이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에서 기인했다면 이들을 위한 집중적인 도움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을 위한 개인 상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가족가치관 확립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

가족 혹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청소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호 체계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비정상적인 가족관계로 인하여 청소년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하는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일차적 보호와 교육 체계로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가족 내 부모를 위한 그리고 청소년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의 세분화와 구체적으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과 가족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의 성장과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정책과 이를 위한 세부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나 조손부모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도움과 보호가 상대적으로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꼭 필요하다. 즉,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학교생활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3)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시스템의 뒷받침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에 더해 청소년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개발시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 개인의 역량으로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책임감, 자기통제력 등이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 개인의 역량을 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부적응적 요소들을 경험하였을 때 좀 더 적응적인 방향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비행예방 프로그램,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과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적인 내용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교생활의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이 학업중단을 경험하지 않도록 이들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실제 부적응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개설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청소년 상담관련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심리 상담에 더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홍보 및 시설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4) 다양한 진로 교육 및 지도를 위한 제도적 지원

청소년은 향후 진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은 학교 진학 또는 사회 진출과 같은 진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진로 지도 및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의 진로 지도를 위한 직접적 혜택과 함께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을 해소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로 교육에 대한 고민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대해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 적용 대상, 범위, 내용 등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진로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의 적용 대상의 확대(중등 이하의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 내용의 다양화,

방법의 다양화가 시급하다.

진로 교육은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청소년을 위한 개인 상담과 진로 상담 혹은 교육을 병행한다면 그 효과가 클 것이다. 또한 진로 교육 및 지도와 관련한 제도를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학교, 지역사회, 산업 시스템, 전문가 등이 진로 교육을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분야를 접하고 이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곽미정, 문신용(2011). 생태체계적 요인이 청소년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정 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3), 215-246.
- 곽수란(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김두환, 김지혜(2011). 부모·친구·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한국사회학, 45(4), 128-168.
- 김영춘, 정민숙(2012).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3, 51-70.
- 김혜금(2015). 성별과 학년 시기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355-374.
- 김희진, 최장원, 이지현, M., Atteraya(2012). 사회, 문화, 융합 영역;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학교생활적응-자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9(1), 273-298.
- 이종원, 황진구, 서정아, 한영근, 허효주, 이영화(201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사업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현철, 최성보(2012).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 종단 분석: 2003(중2)에서 2007년(고3)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1(2), 159-1870
- 이혜경, 김현주(2007).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5(2), 29-42.
- 조한익(2012).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취목표지향성, 희망 및 학습전략의 구조적 관계. 학교심리학회지:학교, 9(3), 465-483.
- 천경민(2010).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과 대인관계기술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14(1), 47-65.

- 천유리, 한기순(2012).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성향 및 관계유지노력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22(4), 875-892.
- 홍봉선, 남미애(2010).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19-42.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Abstract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VI: Data Analysis Report 2

- Longitudinal study of youths' adaptation to school life with their peer relationship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youths' adaptation to school life changes over time and how their early-established peer relationships are associated with the changes in adaptation to school life.

For the analysis in this study, the data of the middle school grade 1 panel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from Year 1 (2010) through to Year 4 (2013) were used. The subjects included 2,351 youths that are the original sample group of the middle school grade 1 panel in the Year 1 survey in 2010, 2,280 respondents in the Year 2 survey (2011), 2,259 respondents in the Year 3 survey (2012), and 2,108 respondents in the Year 4 survey (2013).

Results showed that firstly, there were individual variations in the levels of changes in learning activities, discipline,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over the four years of youths' school life from middle school grade 1 to high school grade 1 and the levels were upward. Secondly, in the level of youths' communic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their peer relationship, there were individual variations in the initial levels of learning activities, discipline,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Thirdly, youths that had high communication levels in the establishment of peer relationship showed higher initial levels of learning activity adaptation, and in youths that had high communication levels, declines in learning activity adaptation were tardy. Fourthly, youths that showed high levels of communication and trust in the establishment of peer relationship had high levels of friendly relationship adaptation, youths that showed high levels of isolation had low levels of friendly relationship adaptation, and there were individual variations. Also, in youths that had high

communication levels, declines in friendly relationship adaptation were tardy.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policy recommendations on individual, family, interpersonal and career education systems to help youths adapt themselves to school life.

Keywords: middle school student, peer relationship, adaptation to school life, longitudinal analysi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I / 최창욱·문호영·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영석·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인규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황세영·이경자·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 / 황여정·김정숙·이수정·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송미경
- 15-R10 이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좌동훈·박세경·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총괄보고서 / 김영한·오해섭·성윤숙·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I : 총괄보고서 / 김현철·모상현·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I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 / 김경준·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장안리·김판준·임영연·정호원·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VI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정은주·강현철·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VI : 데이터분석보고서1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서정아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15-R20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증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15-R24 청소년육성전문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좌동훈·강경균·김정숙·황세영·문호영·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최창욱

수 락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유성렬·임성택·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이유진·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혜정·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전명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김경준·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김경준·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이경상·김정숙·장근영
- 15-R44 청소년·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김형주·박성재·민주홍·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이종원·유성렬·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정은주·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오해섭·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교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연구보고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84-7 94330

979-11-5654-064-9 (세트)